

본 작품들의 열람기록은 로그파일로 남게 됩니다. 단순 열람 목적 외에 작가와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의 허락 없이 이용하거나 무단 전재, 복제, 배포 시 저작권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 제10회 전국문화콘텐츠 스토리텔링 공모전

구 분	내 용
제목	무심천
수상내역	우수상(재단이사장상)
작가	추한진
공모분야	시나리오
주요내용	무심천의 남석교가 세워진 유래를 남녀 간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야기를 주요 내용으로 함

# 무심천 (無心川)

(3막 15장)

**\*기획의도\***

1. 시작은 무심천변 유래비에 적혀있는 설화에서 아주 사소하게 비롯 되었다.  
 “청주 고을 양지바른 곳에 오두막이 있었네 그 집에 한 여인 다섯 살짜리 아들과 살았네 집 뒤로 맑은 물 사찰 흐르고 통나무다리 놓여 있었네 어느날 행인이 하나 찾아들자 여인은 아이를 부탁하고 일보러 나갔고 아이를 돌보던 행인은 그만 깜빡 잠들고 말았네. 깜빡인 듯 여인의 통곡소리에 눈을 뜨니 이게 웬일인고 돌보던 아이 주검되어 그 여인에게 들러있네 사연을 알아보니 행인이 잠든 사이 통나무다리 건너다 물에 빠져 죽었다네. 여인은 아이의 젓가락을 그 물에 뿌리고 삭발 후 산으로 갔다네. 이 소식 인근 사찰에 전해지자 모든 승려 크게 불쌍히 여기어 아이의 명복을 빌기로 했다네. 그들은 백일만에 통나무다리 대신 돌다리를 세웠네 그 다리 이름은 남석교(南石橋)인데 사연 알 바 없이 무심히 흐르는 이 냇물을 일러 무심천(無心川)이라 하였네...”

여인은 누구였을까. 그리고 행인은 누구였을까. 그 행인이 누구였길래 여인은 이제 겨우 다섯 살된 아이를 선뜻 맡기고 일을 보러 나갔을까...  
 궁금중이 점점 불어났다. 그리고 마침내 생각한 것은 승려들이 모여 불력으로 돌다리를 세운 것은 어쩌면 사람들의 더 이상의 희생을 막으려 모든 것을 미리 정한 부처의 뜻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

2. 역사학을 할것인가 문학을 할것인가.

행인을, 그리고 여인을 살아있는 인물로 만들고. 있음직한, 벌어질 법한 사건을 만들어야 했다. 그럴려면 그 시대의 사람들을 찾아야만 했고 많은 자료들을 조사했다. 그러다 보니 역사에 충실할 것인가 문학에 비중을 둘것인가 또다른 고민이 생겼다.

하지만 역사학자가 아닌 이상 결국은 문학 쪽에 추를 기울이기로 했다.  
 어느 정도의 픽션성을 가지려 조심하고 또 조심했지만 어떻게 읽혀질지는 모르겠다. 설씨가 김유신의 셋째 아들 서원공과 하룻밤 맺은 인연으로 연화를 낳은 것- 실제 기록을 보면 서원경에 내려와 상당산성의 개축을 맡은 이가 서원공이었다. 그렇다면 처녀인 설씨가 군사들의 밥을 챙겨주러 부역을 나갔다가 서원공과 하룻밤 인연을 맺게 된다는 설정은 가능할수도 있지 않겠는가.

신문왕 즉위후 실제 일어났던 흠몰의 난과 엮이는 화랑 설매랑의 이야기 역시 마찬가지로 맥락이다.

하지만 한가지 우려되는 점은 극의 중요 인물인 일륜이다. 실제 풍수지리에 뛰어나 청원군 문의면이 물에 잠길 것을 예견했던 일륜은 통일 신라가 아닌 후대 고려 의 승려다. 그의 등장은 실제 역사와 다르게 서술된다는 점에서 한참을 심사숙고 했지만 문학적인 측면에서 그럴수도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자위하며 결국 등장 시키기로 했다.

지금은 비록 지하에 묻혀있지만 하루빨리 남석교를 복원해 그 원형을 다시 볼 수 있는 날을 기다려본다.

**\*줄거리\***

연화의 어미 설씨는 상당산성의 개축을 지휘하러 서원경에 들른 서현공(김유신 장군의 셋째 아들)과 하룻밤 인연이 되어 연화를 낳는다. 하지만 진골인 서현공에 비해 겨우 일품에 불과한 골품의 차이 때문에 서현공 집안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이따금씩 일년에 한번씩 찾아오는 서현공을 기다리며 남석천 가에서 주막을 차리고 딸 연화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

세월이 흘러 열아홉이 된 연화는 국토 순례를 하던중 서원경을 지나는 설매랑을 보고 한눈에 반하게 되고 매일같이 사뇌사에 들러 부처님께 서원경과 인연이 되게 해달라고 정성으로 기도를 올린다.

동네 남자들이 들이대지만 눈하나 까딱 안하고 과부아닌 과부 생활을 하는 설씨. 그런 엄마의 생활이 영 마땅치 않은 연화.

어느날 설씨는 주막에 공양을 하러 들른 일륜대사와 상좌승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된다. 서원경에 홍수가 자주 일어나 많은 피해를 보는것은 이 고을이 물에 떠내려가는 형세라서 그렇고 그걸 막으려면 쇠로 된 철돛대를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설씨는 관아에 건의해 그걸 세우면 되지 않느냐고 말하지만 일륜은 다 때가 있는법이라며 그 일은 먼 훗날에 태어날 혜원이란 중의 몫이라고 말한다.

아쉬워 하는 설씨. 홍수에도 떠내려 가지 않는 통나무 다리가 아닌 돌다리가 하나 생긴다면, 그런 석교 하나 생긴다면 얼마나 좋을까... 설씨는 은연중 농담으로 그런 튼튼한 돌다리 하나 주막 앞에 놓아진다면 그 은덕으로 무엇을 못바치겠냐며 하다못해 내 자식이라도 부처님께 바칠 것이라며 웃는다.

기가 막힌 연화,

“저 다리 따위가 뭐가 중요하다고? 혹시라도 모르지 내 남편감으로 서라벌 제일 가는 꽃미남 설매랑과 인연을 맺게 해주신다면...그럼 기꺼이 부처님께 바치지.”

일륜은 간밤 꿈에 석가모니께서 현몽해 남석천에 들르라는 뜻을 그제야 알게 된다.

부처님의 뜻이구나. 길게 탄식하며 일륜이 다짐을 받듯이 다시 물어본다.

“부부이지만 부부가 아닌채로 살아가야 하는데도 팬찮은가”

“떨어져 있지만 앓다면 상관 없죠 스님”

“진짜 그럴 생각인가? 그대의 자식을 잃는데도?”

결코 그럴일은 없다는 듯 군말 없이 대답하는 연화

“예 예 스님. 기꺼이 드리지요. 데려 가세요”

뒤늦게 앞날을 예견 하는 신라 제일의 일륜대사 임을 알아본 설씨는 연화가 춘색의 나이에 접어들다 보니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쏟아낸 말이라며 무심히 넘겨 달라고 용

서를 구하지만 일륜은 부처님 앞에 허언은 없다고 대답한다.

절망에 젖어 털썩 주저앉는 설씨를 붙잡고 여긴 일륜은 한가지 방법이 있다며 이 곳 남석천을 떠나 다른곳에 가서 터전을 마련하면 혹시 그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알려준다.

코웃음 치는 연화. 말도 안되는 소리 말라며 자신은 어떡하든 설매랑과 만나 인연을 맺을것이라고 기뻐하는 연화. 남석천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자고 말하는 엄마의 말이 귀에 들어올 리가 없다.

세월이 흐르고 흘러 마침내 연화는 일륜의 예언대로 집앞 남석천 통나무 다리 위에서 설매랑과 만나게 되는데.....

### \*등장 인물\*

- \*연화(20)
- \*설매랑(21) 부곡 화랑의 부제. 6두품. (부제- 화랑 풍월주 다음의 2인자)
- \*일륜(60) 풍수에 능하고 미래를 예견할수 있는 스님.
- \*구진(22) 일륜의 상좌승
- \*설씨(42) 연화의 어머니
- \*원정공(48) 연화의 아버지이며 김유신 장군의 셋째 아들.
- \*금천(22)
- \*신공(25) 부곡화랑의 풍월주 (풍월주- 화랑의 우두머리)
- \*아이(5) 연화와 설매랑의 아들.
- \*비태(45)
- \*노부(45)
- \*마을 처녀 1, 2, 3 과 다수.
- \*화랑1, 2, 3 4 와 다수.
- \*스님들 다수.

### 때

통일 신라 시대 서기 680년경 신문왕 즉위 얼마 후 흙돌의 난을 배경으로.

### 장소

서원경(지금의 청주) 남석천 주변과 그 부근.

### 무대

기본적으로 무대 뒤편에는 얇은 언덕과 숲.

무대 오른쪽에는 평상이 놓여진 주막,

그리고 무대 왼쪽으로는 통나무를 엮어 길게 만든 통나무 다리 놓여있다.

나무 다리와 평상은 상황에 따라 설치, 제거 할수도 있다.

1막

1장

무대 뒤쪽-언덕 위에 서있는 일륜 대사와 구진,  
 일륜, 천천히 고개 돌려 보며 먼곳을 바라보고 있다.

구진 어쩡습니까 스승님. 고을이 한눈에 내려다보이죠? 서원경을 구경하려  
 면 역시 여기 우암산만큼 전망 좋은 명당이 따로 없다니까요.  
 일륜 좋구나. 저 산이 상당산이냐.  
 구진 예. 그리고 저쪽은 구녀산. 그리고 선도산, 이쪽의 낮은 산은 부모산  
 입니다.  
 일륜 산빛도 아름답고 산세도 날카로운 면이 없어 살기(殺氣)도 전혀 안보  
 이는 것을 보니 사람들도 순하고 화평하겠구나.  
 구진 소박한 편이지요 사람들이.  
 일륜 저쪽은 들판 가운데 산이 있구나.  
 구진 여덟개의 봉우리가 병풍처럼 펼쳐져 있어 팔봉산이라 부릅니다 스승  
 님. 불가에 입문하기전 제가 태어나 자란 곳이기도 합니다.  
 일륜 (갑자기 탄식하는) 허어~  
 구진 왜 그러십니까 스승님.  
 일륜 이걸 어찌하면 좋을꼬. 허어~  
 구진 (의아한) 왜 갑자기 한숨만 내쉬고 계십니까 스승님.  
 일륜 허어~ 허어.  
 구진 스니임! 답답해 죽겠습니다. 처음엔 온통 칭찬 일색이이시더니 계속해  
 탄식만 내쉬고 있고.  
 일륜 안타까와 그런다.  
 구진 뭐가 말입니까.  
 일륜 니 눈엔 저 고을이 물에 떠내려 가고 있는 것이 안보이느냐.  
 구진 예? 이 고을이 말입니까. (다시 무대쪽 바라보며) 원 스승님두 참. 말  
 이 되는 말씀을 하십시오. 저기 저렇게 마을두 사람두 그대로 있는데  
 어딜 떠내려 간다는 겁니까 스승님.  
 일륜 천천히 자알 살펴 보거라.

구진, 다시 살펴 보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구진 아무것도 안보이는데요.  
 일륜 (혀를 차며) 쫓쫓 왜 그리 성미가 급한 것이냐.  
 구진 (입 삐죽이며 혼잣말 비슷하게) 아니... 안보이니까 안보인다고 말씀

일륜 드리온건데... 굳이 혀까지 차시면서...  
 구진 풍수가 무엇이라 하였느냐.  
 일륜 산세, 지세, 수세 등을 판단해 인간의 길흉화복에 연결시키는 것이라  
 고 말씀 하셨습니다.  
 일륜 풍수를 공부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 하였느냐.  
 구진 인내 입니다.  
 일륜 그런데 왜 그리 매사를 그렇게 급히 판단하고 쉬이 포기하고 그러는  
 것이냐.  
 구진 (망설이다가) 솔직히 말씀 드려도 됩니까 스승님?  
 일륜 말해 보거라.  
 구진 저는 풍수 공부 가 그렇게 썩 맘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당장 먹고 살  
 기도 빠듯한 사람들에게 땅 속에 흐르고 있는 정기가 물에 방해되고  
 바람에 흩어지지 않는 곳을 취하고, 산천의 형세에 따라 조상의 묘를  
 써야만이 자손이 정기를 받아 부귀복수를 누리게 된다는게 먹을게 없  
 어 하루하루 간신히 연명해 사는 사람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  
 까. 그러느니 당장 살아있는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일이 더 절실하  
 다고 생각합니다.  
 일륜 공양을 마치자마자 마을로 나가 사람들의 발일을 도와주는것도 그 때  
 문인 것이냐?  
 구진 예 스승님. 당나라의 백장 선사께서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까. 일일부  
 작 일일불식,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밥을 먹지 않는다. 율력으로  
 대중들을 돕는 것이 저는 더 좋습니다.  
 일륜 그래, 수행에는 형식이 있는법이 아니다. 힘들어 하는 대중들의 발일  
 논일을 도와주는 것도 하나의 수양이지. 기특한 일이다. 하지만 구진  
 아.  
 구진 예 스승님.  
 일륜 풍수는 세월이 흐른후에 어느 한 사람이 아닌 여러 대중들을 살릴수  
 도 있다는걸 명심하거라. 공부에 매진해 대중들을 위한 니 애뜻한 정  
 성에 풍수를 더한다면 넌 더욱더 많은 사람들을 돕는 것이 될게다.  
 구진 명심 하겠습니다 스승님.  
 일륜 풍수는 심안으로 보는 법이다. 자 이제 잠시 눈을 감았다 뜬 다음에  
 마음의 눈으로 다시 이 서원경을 내려다 보거라.

구진,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뜨고 이번엔 심각하게 고을을 내려다 본다.

구진 ! 보입니다 스승님. 뱀니다. 이 고을이 영락 없는 배 모양입니다.  
 일륜 이제야 보이느냐. 좀 더 잘 살펴 보거라.

구진 (놀라) 이 서원경이 떠나려 가고 있습니다. 북쪽으로 떠나려 가는것이 보입니다.  
 일륜 기특하구나. 이 서원경은 행주형이다. 지형이 서향인데다 남쪽이 막히고 북쪽이 트여있어 그 쪽으로 자꾸만 나아가려 한다.  
 구진 왜 이렇게 자꾸만 떠나려가려 하는 겁니까.  
 일륜 배는 물위에 떠있어야만 기능을 하는 법이다. 한곳에 머무르고 있으면 쓸모가 없는법. 끊임없이 물을 필요로 해서 그런 것이다.  
 구진 그럼 혹시 이 서원경에 홍수가 자주 일어나는것도... 얼마전에도 갑자기 때아닌 봄홍수가 나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네요.  
 일륜 안타까운 일이지.  
 구진 배를 그대로 머물게 하는 방도는 없습니까 스승님.

**안타까운 듯 탄식을 하며 합장을 올리는 일륜.**

일륜 나무관세음 보살.  
 구진 풍수에는 반드시 해결책이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일륜 그래 방책이 있다.  
 구진 (환해지는데)  
 일륜 하지만 그것은 내 뜻대로 할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구진 (실망한 표정으로 보는데)  
 일륜 남석천으로 가려면 어느 곳으로 내려가야 하느냐.  
 구진 (통명스럽게) 뜬금없이 거긴 왜 가려고 하십니까.  
 일륜 앞장 서거라.  
 구진 (화가 난) 예 예. 그렇게 하죠.

**일륜, 구진을 따라 내려간다.**

**자못 아쉬운 얼굴로 다시 한번 뒤돌아 보는 일륜.**

**2장**

**사뇌사 대웅전 앞마당.**

연화를 비롯한 마을 처녀들, 두 손을 모아 합장하고 탑돌이를 하고 있다.

**(노래1. 마을 처녀들의 노래)**

달님아, 달님아. 왜 이렇게 더디 가니.  
 달님아 달님아. 왜 이렇게 더디 가니.  
 어서 빨리 달려가렴.

서방까지 서방정토까지  
 쉬지말고 달려가렴.  
 아미타불 부처님께 전해주렴.  
 다짐 깊으신 부처님께 전해주렴.  
 두 손 합장하고 원왕생 원왕생  
 두 손 합장하고 원왕생 원왕생  
 그리운 사람 있다고  
 매일 아침 매일 저녁 그리워 한다고  
 그 이가 돌아올 때까지  
 뜬눈으로 지낸다고  
 그 이를 보내 달라고  
 그 이를 보내달라고  
 내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어서 빨리 부처님께 전해주렴.  
 달님아, 달님아. 왜 이렇게 더디 가니.  
 달님아 달님아. 왜 이렇게 더디 가니.  
 어서 빨리 달려가렴.  
**(항가 <원왕생가>를 약간 개사한 곡임)**

노래 끝나고 여자들 무대 앞으로 나오면  
 뒤늦게 등장한 금천, 혼자 탑돌이를 하고 있다.

처녀1 (금천쪽 보며) 어휴, 난 금천만 보면 가슴이 두근두근, 심장이 별령별령 똑바로 보지를 못하겠어.  
 처녀2 글썸 말이지. 저 울퉁불퉁한 팔뚝 근육좀 봐... 하이고 그 품에 한번 안겨봤으면 오늘 당장 죽어도 소원이 없겠다.  
 처녀3 망측한 년. 처녀 애가 못하는 소리가 없어. 그러다 시집 어떻게 갈려구.  
 처녀1 금천이랑 혼인하면 되지 뭘 그런거 걱정해?  
 처녀3 으이구 뽕 떨어지면 구워 먹어라 이것야. 금천 눈엔 연화밖에 안보이는거 몰라서 그만 소리 하나? 넘볼걸 넘박야지.  
 연화 난 상관 없으니까 지지고 뷰던지, 금천이 데리고 산속으로 끌고 들어가 만리장성을 쌓던지 니 맘대로 해. 난 이 서원경 촌구석 남자들 일랑은 조금도 엮이고 싶지 않으니까. 남자라면 적어도 설매랑님 정도는 되야지.  
 처녀1 (놀라) 서라벌 제일의 꽃미남 설매랑 말야?  
 연화 그래. 난 설매랑님 아니면 어떤 남자랑도 절대 혼인 안해.

**처녀들, 혀를 찬다.**

처녀3 설매랑님 얼굴 한번 보더니 애가 완전히 맛이 갔어.  
 처녀1 그 귀한 얼굴을 언제 봤대?  
 처녀3 작년 국토 순례할 때 신공님의 부곡화랑이 여기 서원경을 지나간적 있잖아.  
 처녀2 맞아. 설매랑님이 신공님 부곡화랑의 부제 이시지.  
 처녀3 그때 먼발치에서 설매랑님 얼굴을 보고 나서 연화 저것이 아직까지도 허황된 꿈에 빠져 살잖아.  
 처녀2 지가 주동이 되어 설사모도 만들었다.  
 처녀1 설사모? 그게 뭔대.  
 처녀2 설매랑을 사모하는 처녀들의 모임이래나 뭐래나. 아주 가관이야. 매달 보름에 한번씩 모여 설매랑의 안녕을 기원하느라 불공도 올린단다.  
 처녀1 니네 엄마 위해서 그렇게 한번 정성을 드려봐라.  
 연화 우리 엄마 혼자 잘 사는데 뭐.  
 처녀2 미쳤구나 미쳤어.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랬어 이것야. 우리같이 일품에 불과한 아랫것들이 감히 웃전 진골을 넘보니?  
 연화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댔어.  
 처녀1 니가 그래서 맨날 이 사늬사 들러 부처님한테 백팔배 올리는거였구나.  
 처녀3 병이다 병. 금천도 너한테 감지덕지야.  
 연화 금천? 포구에서 어물이나 파는 그런 사람 백명을 갖다줘봐라? 내 눈 하나 까딱하나!

**금천, 활짝 핀 연꽃을 들고 처녀들 쪽으로 다가온다.**

처녀3 그저 동녘이 흰하면 세상인줄로만 알지. 어리석기는... 서원경 통털어서 금천만한 남자 어디 있다구? 착하구 성실하지 부강포에 자기 점포도 두 개나 있어 배끓는일 절대 없을테구.  
 연화 그렇게 좋은 자리면 언니가 금천이랑 혼인 하던가.  
 처녀2 하이고 지 분수도 모르고...  
 금천 (연화에게 꽃 내밀며) 받아 연화야. 일부러 너 졸려고 서문지까지 가서 꺾어왔다.  
 처녀1 정성이다 정성. 언제 부모산성까지 갔다왔대.  
 연화 내가 왜 니 꽃을 받아?  
 금천 니 이름이 연화잖아. 너하고 아주 잘 어울리니까.

연화 됐거든. 난 너 죽었다 깨도 싫으니까 이사때 삽살개 출랑거리듯이 따라다니지좀 마라. 난 너같은 촌 남자들은 딱 질색이야. 설매랑님 만나는데 내 꿈이니까 제발 방해좀 하지 말구 어? 설매랑님이 아주 잘 익은 복숭아라면 넌 똥은 배야. 괜히 나 따라 다니다가 소문이라도 나면 나 설매랑님한테 시집도 못가.  
 금천 시집 못가면 나한테 오면 되겠네. 너무 그러지 말고 똥은 배라도 한번 먹어봐. 천천히 씹다 보면 그 나름대로 맛도 있고 먹을만한 법이야. 아직 니가 날 잘 몰라서 그렇지 나도 비단옷 입고 머리좀 설매랑처럼 꾸미면 괜찮은 사람이다?  
 연화 말을 말아야지. 됐거든. 동네 처녀 민다가 장가 못가 몽달로 죽은 귀신짝 나지말고 너 좋다는 영실이나 챙겨!  
 처녀1 (연꽃 뺏으며) 그럼 나나 줘 금천아.

**3장**

“연화야~ 연화야~ 설씨가 연화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며 무대 서서히 밝아온다.  
 오른쪽 주막 앞마당에 평생 놓여져 있고 원정공 길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  
 관복이 아닌 평상복이지만 귀티가 나는 느낌.  
 화가 난 얼굴로 연화를 찾고 있는 설씨.

설씨 애가 도대체 어딜 간거야. 아버지 가시는데.  
 원정공 그냥 두시게. 날 보고 싶어하지 않아 일부러 마실 간거겠지.  
 설씨 (민망한) 그럴 리가 있나요.  
 원정공 아버지라고 내 그 애한테 해준게 뭐가 있나. 같이 살지도 못하고.. 이렇게 일년에 한번 홀연히 나타나 이삼일 머물다 가니 그 애 속이 오죽 할려구...  
 설씨 다신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저 아버지 없으면 지가 이 세상에 저절로 똑똑 떨어진답니까. 다 부모 있으니 이 세상 나오는 거지...  
 원정공 고맙네. 어딜 떠나지 않고 늘 여기서 자네가 날 기다려주는거 자네 그 애투한 맘 항상 잊지 않고 있네. 하지만 이제, 당신도 행여 좋은 기회가 생기면 놓치지 말아야지.  
 설씨 별 말씀을 다 하네요. 당신이 연화 아버지고 내가 연화 엄만데 당연히 여기서 기다리는게 도리지 내가 어딜 떠나고 또 무슨 영광을 보겠다고 당신 버리고 딴 뜻을 품는답니까. 행여 농이라도 다신 그런 말씀 마세요.  
 원정공 (애투이 보다가) 나... 이제 어쩌면 명년부터 여기 못올지도 모른다네. 서라벌에서도 자네에 대해 어렵듯이 알고 여기 더 들르면 자네가 곤

설씨 (놀랍고 서운 하지만 애써 참으며) 그럼 안되지요 암. 나 곤란해 지는 건 얼마든지 참을수 있지만 당신 입장도 어려워지는거 그건 절대 안 되지요. 난 상관 말고 걱정 조금도 하지 마세요. 어서 출발 하세요.

원정공 (안스럽고 미안한) 이만 가봐야겠네.

원정공, 무대 밖으로 퇴장하고.

설씨 눈물 참으려 애써 행주 치마로 코를 헹하니 풀고 멍하니 원정공 사라진쪽 바라 보는데 연화(19) 불맨 얼굴로 들어온다.

설씨 (등짝 한 대 때리며) 이것야. 아버지 가는데 배웅도 안드리냐. 맨날 우리랑 같이 계시면 내 말도 안한다. 일년에 한번 어쩌다 찾아오는 아버지 떠나시는데 인사도 안하는 딸년은 사방팔방 온 천지에 너밖에 없을거다!

연화 하이고 어머니. 말씀 한번 잘하시네. 가족이 뭐야. 가족이면 다 같이 살아야 가족 아닌가. 어쩌다 일년에 한번 뺨쪽 찾아오는 아버지가 뭘 가족이라고. 동짓달 꽃본 것처럼 어머니나 싫것 반가와 하던가.

설씨 그래 너 이제부터 시원 하겠다. 그렇지 않아도 니 아버지 내년부터 못오신다더라. 이제 속이 좀 됐다. 어쩌면 저렇게 심사가 차갑고 쌀쌀 맞을까. 앉은 자리에 풀도 안나겠네.

연화 (약간은 서운 하지만 마음 감추고) 뭐 잘 됐네. 그 쪽 서라벌 식구들 이랑 이제 오손도손 살아갈래나 보지. 어차피 우리랑은 골품도 다른 사람 아냐! 그런 사람이 뭐가 아쉽다고 이 서원경에서 우리랑 살겠 어? 우리도 어머니랑 나랑 둘이서 알콩달콩 살면 되는거지 겁날거 있어?

설씨 (혀를 차며) 저 저 말하는 꼬락서니 하고는. 삼신 할머니가 아무래도 널 만들때 입부터 만들었나 보다. 어떻게 된게 딸이란게 엄마한테 한 마디라도 지는법이 없어. 내 말을 말아야지. (다시 나가려는 연화 보고) 너 또 어딜 나가려는게야. 이리 와서 도라지 캐온거 다듬을 생각 은 안하고.

연화, 나가려다 입 뺨죽이며 평상에 와 앉아 설씨와 도라지 다듬는다.

무대 왼편으로 등에 지게를 진 비태와 노부 등장 한다.

평상 위에 앉아 연화 부녀가 다듬고 있는 도라지를 보는 비태.

비태 어이구 그 도라지 뿌리 씨알도 굵다. 굵고 튼실하니 내 몸 어딘가에 매달려 있는거랑 똑같이 생겼네. 지난번 상당성안에 살던 과부 하나

도 이 도라지 뿌리 맛을 한번 보더니 아 날보고 맨날 들르라고 하더 라구.

설씨 애도 있는데 실없는 농지거리 하지 말고 당장 가요들. 이번엔 어물 살 일도 없으니까.

연화 듣는 딸 서럽네. 왜, 내 입은 입이 아냐 어머니? 아버지 상에 올린 것처럼 비싼 해삼 문어는 아니래도 고등어 콩친 나도 먹을줄 알아. 아버지 인삼 사시면 하다못해 난 무 콩다리라도 먹어야 되는거 아닌가

비태 서라벌 양반 왔다 가셨나.

연화 오늘 아침 가셨어요.

노부 연화야. 뱃가죽이 등가죽인지 등가죽이 뱃가죽인지 모르겠다. 배고파 죽겠으니가 나물밥에다 버섯탕하고, 니네 아버지 왔다 갔으면 아주 정성들여 빚어놓은 맑은술도 있겠네. 것두 한 사발 내오구

설씨 왜 애면집에 와서 술을 찾아요들. 나 밥만 팔지 술은 안판다고 한거 잊어버렸어요?

노부 아 서라벌 양반 올때마다 술 빚어놓은거 알고 있어. 어서 밥이나 내 오라구. 설씨 나물밥 솜싹 서원경에서 알아주잖아. 내 그거 먹으려 고 부강포 나루서 이적까지 쫓쫓 굶고 왔어.

일륜과 구진 들어온다.

구진 (평상에 앉으며) 우리도 국밥 한그릇씩 갖다 주오.

설씨 알았수 (일어나는데)

비태 임자 손맛 안들여간 음식은 음식이 아닌거 같아. 임자가 차려주는 밥 아침저녁으로 받아 먹으면 내 여한이 없겠네.

설씨 절간 망할려면 새우젓 장수 들어온다더니 별 소릴 다 듣네. 내 이번 엔 차려주겠는데 그런 소리 할려면 대신 우리집에 신발 한짝도 들여 놀 생각들 말아요.

설씨 퇴장한다.

비태 연화야. 니 어머니 기분이 왜 저러냐. 서라벌 양반 다녀가면 몇날 며 칠은 기분 흥흥흥 이었는데. 얼굴이 딱 저녁 굶은 시어미 상이다.

연화 이번에 아주 가서서 그래요. 대신 못오신다고 하셨나봐요.

비태 (고개 끄덕이는데)

설씨 E 연화야 너도 들어와 저기 스님들 상 내가라.

연화 알았어요. (들어간다)

곤 두 모녀 작은 상 하나씩 들고 나와 두 일행 앞에 놓는다.  
비태 소반에는 술병 놓여져 있다.

비태 (술병 들고) 임자 입에 담아 따라주면 한잔에 극락 갈텐데.  
노부 글썽 말이지.  
설씨 극락이야 절에 가서 찾던가 여기 스님들한테 물어보던가 해야지 뭐 우리 집에서 찾아요. 하여간 남정네들이라고... 내 처지 뻘히 알면서 고생 많다고 입보시는 못할망정 터진 입으로 실없는 소리 들이나 해 대고.  
비태 아무리 농이라 해도 남정네 말속엔 빠가 있는 법이여.  
노부 한마디 한마디 생선 바르듯 헤집다 보면 그 농속엔 기막힌 정답이 있는 법이지.  
설씨 (비꼬는) 기막힌 비유요. 누가 생선 장사들 아니랄까봐.

비태. 노부 웃으며 식사 시작한다.  
일륜. 수저 드는데 아까부터 못마땅하게 보고 있던 구진 못참겠다는 듯 입을 연다.

구진 스승님. 해결책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일륜 내가 나설 문제가 아니다.  
구진 아니 그런 무책임한 말씀을 하십니까. 스승님은 이 서원경 사람들이 홍수에 떠내려가도 상관 없다는 말씀이세요?

연화 모녀와 비태 노부, 들었다. 무슨 말인가 두 사람 보는데.

구진 방도를 아신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이 고을 사람들이 해결할수 있도록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일륜 그 농 참 귀찮게 하는구나. 그래 아주 간단한 문제다. 배에 돛대를 세우면 휩쓸려 가지는 않을 것이다.  
구진 (일어나서) 그럼 당장 관부에 알려져 돛대를 세우면/  
일륜 허어, 이 농이?  
구진 왜요 스승님.  
일륜 왜 그리 서두는 것이냐. 행동을 하기 전엔 내가 항상 생각을 해보라고 하지 않았느냐.  
구진 아니 생각이고 자시고 할 것 없이 스승님이 말씀 했던 것처럼 돛대를 세우면 되는거 아닙니까.  
일륜 앞뒤 재지않는 니 녀석의 그 성급함은 언젠간 큰 화를 부르게 될 것

이다.

구진 (입 삐죽)  
일륜 마저 말을 듣거라. 철로 된 돛대를 세우면 이 서원경은 해마다 반복되는 물 난리에서 벗어날수 있게 될 것이다.  
설씨 (반색하며 끼어들다) 정말입니까 스님.  
일륜 하지만 그리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그 철돛대를 세우는 위치는 아무도 모른다.  
구진 스승님도 모르니까.  
일륜 우암산 위에서는 보이지만 막상 내려오면 그 적절한 위치가 내 눈엔 도저히 보이지를 않는구나. 진정한 길지를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의 여부는 여전히 하늘에 달려 있어 그런 것이다.  
구진 스승님같은 분도 모른다면 대체 누가 안답니까.  
일륜 부처님의 뜻이다. 나하고는 인연이 닿지않는게야. 하늘에 맡겨 두어야 할 자연의 신비적 힘들을 조작함으로써 자연에 대한 존경심을 결여하게 된다는 것을 경계하려는 뜻이겠지.  
비태 그럼 그 인연이 되는 사람은 누구니까 스님.  
일륜 혜원이란 사람이요.  
설씨 어디 사는 사람입니까. 이 서원경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아도 해마다 저 남석천 물이 넘쳐서 사람이 빠지고 다리가 떠내려 가는데. 당장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스님.  
일륜 이 세상 사람이 아니요. 혜원이란 자는.  
사람들 (놀라) 예?  
일륜 앞으로 태어날 사람이요. 혜원이란 중이 그 정확한 위치를 찾아내 아주 거대한 철당간을 세워 돛대로 대신할 것이요.  
설씨 (낙담하며) 그게 다 부처님 뜻이란 말씀입니까. 에이구 그럼 내 살아 생전 남석천에 석교 놓이는건 절대 못보겠구만. 올해 봄 장사도 홍수가 나서 망쳤고 작년도 물넘쳐 망쳤고... (혼잣말) 불력으로라도 누가 저 앞에 석교라도 놔준다면 내 자식이라도 시주할텐데.  
연화 (들었다) 뭐야. 내가 머리 깎고 중이라도 되라는거야 어머니?  
설씨 내가 아무렴 자식까지 팔겠느냐. 그만큼 간절하다는 거지.  
연화 원 참. 아무리 농이라도 어떻게 그런 농담을 해. 설매랑님 같은 남자 만나 평생 같이 하게 해준다면 모를까.  
설씨 이것이 미쳤나? 아무리 남자가 좋아도 그렇지 지 자식 팔아 서방 만나게 뭐가 좋더구.  
연화 왜 못해? 신라 제일의 미남자를 얻을수 있다면야?  
설씨 어이구 나무관세음 보살 나무 관세음 보살.  
일륜 (뚫어질 듯 보며) 정말 설매랑을 만나면 니 자식을 부처님께 올릴수

있다거나.  
**연화** 왜, 스님이 그렇게 해주실거예요?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내 기꺼이 자식을 부처님께 공양 드리죠.  
**설씨** 미친것 미친것. 지 자식을 낳아보면 절대 저런 소리 못하지. (빈정대듯) 왜? 이왕 하는거 저 앞에 석교도 놓아달라고 그러지.  
**연화** 들으셨죠 스님. 석교도 같이 놓아주면 이왕지사 더 좋구요.  
**일륜** (심각하게) 한번 내뱉은 말은 되돌릴순 없는 법이다!  
**연화** (무심히 넘기는) 예 예 스님. 당연한 말씀이죠. (설씨 보며) 어머니 저 동무들이랑 만나기로 해서 나가요. (연화 퇴장한다)

**일륜, 나가는 연화 뒷모습을 안타까운 듯 보며 눈을 감고 염주를 헤아린다.**

**일륜** 나무 관세음 보살, 나무 관세음 보살, 간밤 꿈에 부처님께서 현몽해 남석천으로 가라고 하신 것이 결국 이런 뜻이었던가...  
**노부** (일륜 유심히 보다가) 혹시 일륜 스님 아니신지요.  
**설씨** (놀라 일륜을 본다)  
**비태** 맞네 일륜스님 맞네. 이보게 설씨. 일륜 스님 한테 어서 연화가 했던 무례한 말들 용서 구하게.  
**설씨** (걱정되는) 스님,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미천한 딸자식입니다. 조금전 드린 말은 그냥 실언이라고 생각하시고 무심히 넘기십시오.  
**일륜** 안타깝네만 부처님 앞에 허언이란 없는 법일세.  
**설씨** (놀라) 예?  
**일륜** (일어나며) 구진아, 해가 지기전에 걸음 옮겨야겠다.  
**구진** 예 스승님.

**구진, 소매춤에서 엽전 꺼내 상위에 내려놓고 일륜을 따라 걸음을 옮긴다.**

**설씨 급히 달려와 일륜 앞을 막아선다.**

**설씨** 이렇게 가시면 어떡합니까 스님. 세상물정 모르는 제 딸년이 춘색의 나이에 접어들다 보니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쏟아낸 말인데... 세상에 라 스님. 그럼 지 손주를 공양해야 한다는건데 그런법은 없습니다요  
**일륜** 모든게 부처님의 뜻이오.  
**설씨** 살아있는 자식을 거두어 가는게 대자대비 하신 부처님 뜻입니까. 스님. 있으나 없으나 한 지 아버지 없이 애지중지 기른 여식입니다. 어미로써 내 바램, 제 딸년 연화가 그저 성품 좋은 남자 만나 토실한 아이 기르며 사는게 이 예미의 바램입니다 스님. 부디 방금 내뱉은 제 딸년 말은 마음 쓰지 말고 아량을 베풀어주십시오.

**구진** 예 스승님. 선처를 배풀어주십시오.  
**일륜** 한번 정해진 운명은 나도 어쩔 방도가 없소이다.

**설씨, 절망에 젖어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는다.**

**구진, 안스러운 듯 설씨 보다가 일륜을 본다.**

**구진** 스님입~  
**일륜** (잠시 망설이다) 방도가 하나 있긴 있소이다.  
**설씨** (눈 번쩍 뜨여) 무엇이십니까.  
**일륜** 이곳을 떠나시오.  
**설씨** ?  
**일륜** 이 남석천을 떠나 다른곳에 가서 터전을 마련하십시오. 그러면 행여 그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도 모르오. 가자 구진아.

**일륜, 걸음 옮긴다. 구진, 안스런 눈길로 설씨 돌아보며 일륜을 따라 무대 퇴장한다.**

**설씨, 멍하니 서있는데.**

**비태** 스님 말대로 여기 떠나는게 좋을거 같은디...  
**노부** 그런데 아까와서 어떻게 하나. 여기서 기반 다 잡아놨는데. 더구나 소문에 왕께서는 수도도 서라벌에서 여기 서원경으로 옮길지도 모른다는데. 그렇게만 되면 설씨 그 빼어난 음식 솜씨로 서원경 돈은 짹짹 굶어모을텐데.

**설씨, 평상에 멍하니 앉아 생각에 빠져있다.**

#### 4장

**천둥 치는 소리. 번개불이 번쩍이며 후두둑 후두둑 빗소리 들린다.**

**설씨 멍하니 평상에 앉아 비가 오는 풍경 바라보고 있다.**

**설씨** 저 비한번 올려고 하늘이 찢어지며 난리를 폈나보네. 어쩐지 아침부터 날씨가 꾸물꾸물 하더니...

**잠시 후 급히 비를 피해 뛰어 들어오는 연화. 품에는 창포 줄기 품고 있다.**

**연화** 조금만 늦었어도 비 맞은 생쥐풀 다 뒹뻗혔네.

**설씨** 어딜 그렇게 돌아 다니는게야.

연화 동무들이랑 창포 꺾으러 갔다왔지.  
 설씨 지난번 창포 삶은물 아직도 남았는데 뭘 그렇게 서둘러.  
 연화 좀 지났잖아. 새걸로 해야 머릿결도 좋고 부드러워져. 혹시 알아? 설 매랑님 우연히 만나면 내 탐스런 머리칼 보고 반하게 될지.

**설씨, 딱한 눈으로 연화를 바라보다 한숨을 쉰다.**

연화 어머니 우리 메밀전이나 해먹을까. 비도 오는데.  
 설씨 갑자기 웬 메밀전이야.  
 연화 내가 해올게. (일어나려는데)  
 설씨 관 뉘. 널 어떻게 믿고 부엌엘 들여보내. 내가 해오는게 낫지. 어이그 진작부터 일찌감치 가르쳐야 했었는데 그제 딸 귀한 맘만 앞서다 내가 널 가르쳤다. 나중에 시집 가면 평생 하겠지 생각에... 하긴 뉘. (무대 오른쪽으로 나가며) 시집 보내지 않고 사위가 처갓집에 들어오는 법도도 있는법이니까. (퇴장한다)  
 연화 시집 가서 닥치면 어련히 할까봐.

**무대 밖에서 설씨의 말 소리 들려온다.**

설씨 E 여자가 부엌에 들어서면 먼저 팔을 걷어 부쳐야 하는거야. 몸이 간단해야 휘두루기가 쉽지. 몸을 사리니까 부엌이 넓어보이는 거다. 그담엔 그릇이고 양념단지들의 정돈. 어수선하면 맛을 잃어버려. 여인네가 그릇소리 내는건 잘 때 이빨 가는 소리랑 같은거구. 익힌 음식은 불에 따라 맛이 갈라지지. 쉬 끓이면 맛이 뚱고 더딘 불로 끓이면 맛이 지리고.  
 연화 (무대 바깥쪽 향해) 들어가고 나면 다 한 뼛속인데 뉘..  
 설씨 E 아이고 부처님. 저 철딱서니 없는걸 어떡해야 할까요.

**연화, 웃으며 고개 돌려 다시 비오는 바깥 풍경 바라본다.**

기분 우울해지는 듯

**(노래2. 연화의 노래)**

바람아. 불어도 임 앞에 불지는 마라.  
 물결아. 치더라도 임 앞에 치지는 마라.  
 비야. 오더라도 임 오시는 길에는 내리지 마라.  
 임 오시다가 돌아간단다.  
 임이여 빨리빨리 오세요.

**다시 만나 안고 보고**

아아, 임이여 잡은 손을 차마 풀리칠건가요.

**(향가. <송출정가>를 약간 개사한 가사)**

**설씨, 작은 소반에 메밀전과 술병 들고 나와 평상에 앉는다.**

연화 웬 술이래?  
 설씨 우리 딸하구 한 잔 할려구.  
 연화 언젠 술먹는 처녀애는 다 끝난거라고 하더니만.  
 설씨 에미랑 같이 마시는건 괜찮다.

**한 잔 비우곤 또 다시 급히 한 잔 비우면**

연화 안주 좀 먹어. 안주 안먹으면 사위 덕 못본다더러.  
 설씨 그래 그럼 먹어야지 (전 한쪽 뜯어먹곤) 아, 좋다~ (두 손으로 자신의 어깨 만지며) 과부는 아니래도 혼자 사는 여편네 등은 가리고 가려도 표가 나나 보다. 덮고 또 덮어도 마냥 시려. 옛 말 과부 어깨엔 나비도 안앉는다더니 설새없이 찬바람이 나부끼네.  
 연화 (보다가) 어머니.  
 설씨 왜.  
 연화 어머니 혼인할 생각 없수.  
 설씨 니 아버지 놔두고 또 혼인을 하나.  
 연화 어차피 그 집에서 인정 받지도 못하고 또 내년부턴 못온다며. 아버지 발길 영영 끊었는데 어머니 인생도 찾아야 될거 아니우.  
 설씨 누가 나한테 온다구 그러대?  
 연화 비태 아저씨 어때? 어머니 무지하게 좋아 하잖아. 내가 그렇게 우리 어머니가 좋으면 보쌈이래도 하라구 그랬어.  
 설씨 (웃으며) 살다살다 지 엄마 중신 서는 딸은 처음 봤네. 그게 무슨 경우야.  
 연화 아 중이 지 머리 못깎으면 그럴수도 있는거지.  
 설씨 난 생각 없다. 우리 연화 혼인 시켜 듬직한 사위 얻어 한집에서 한평생 살으려나. 그리고 남자는 니 아버지 하나면 됐구.  
 연화 그렇게 아버지가 좋아?  
 설씨 그랬지... 참 멋진 사내였어. 보자마자 내가 반했었지. 상당성 개축때 의관을 갖추시고 의젓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지휘 하시는데 얼마나 멋있었냐 하면 글썩 그 분 뒤에 부처님 뒤에나 있을 광배가 보이더라니까. 그때 시원한 단술을 한잔 건네드리니까 날 흐뭇하게 지켜보시더

연화 라.  
 설씨 그날밤 어머니집에 아버지가 찾아오셨겠네?  
 연화 그래. 그날 밤 널 갖게 되었다.  
 설씨 왜 아버지는 그런 어머니를 놔두고 서라벌로 돌아가셨대?  
 설씨 상당성 개축을 끝내셨으니까. 널 가진걸 전혀 모르셨지. 뒤늦게 배가 불러서 서라벌엘 찾아갔었다. 그리고 그때야 그 분이 김유신 장군의 셋째 아드님이란걸 알았지.  
 연화 (놀라) 삼국통일의 대업을 이루셨던? 그럼 김유신 장군이 내 할아버지라는거야? 아버지 6두품 관직에 계신다면?  
 설씨 그런다고 달라지는거 있느냐. 알면 오히려 니 속상해 할까봐 일부러 말 안했다. 그래봤자 넌 모계 골품 이어받는데.  
 연화 어쨌든 나도 그 핏줄 이어받은 거잖아. 그러면 거기서 살지 뭐하러 여기 서원경엔 도로 내려왔어?  
 설씨 그 분의 집안은 할아버지와 아버지도 각간에 종사했던 진골 집안이다. 우리 신분은 일품이구. 왕도에 머물고 있는 나에게 하루는 만명부인, 그러니까 니 할머니 되시는 분이 오셨더라. 날 불쌍히 여기셨는지 딸이든 아들이든 아이를 낳은후에 떠나라고 말씀 하시더라. 널 키워 주겠다고... 하지만 그건 안될 말. 어느 어미가 자식을 버리고 독하게 떠날 수 있는거냐.  
 연화 그래서 그냥 일루 돌아온거야? 그러면 서라벌에 방 하나라도 얻어서 어떡하든 거기서 아주 가끔이라도 아버지 만나 살지.  
 설씨 그건 내가 못할 짓이더라. 물론 그 어른 댁에서도 난리가 났겠지만 무엇보다도 그건 내가 싫었어. 그냥 니 외가로 돌아와야지 ... 너 하나 보고 살면 되지.. 그런 마음에 발길 돌려 떠나는데 니 아버지 내 손 붙잡고 울면서 서라벌에서 상주땅 까지 배웅해 주는데 그 먼 길을 꼭 잡은 내 손 한번도 놓치 않더라. 나도 얼마나 헤어지기 싫던지... 니 아버지 그러더라. 자기가 어떡하든 일년에 한번은 찾아올테니까.... (복 바치는 듯 눈물 닦으며) 내가 딸 앞에 앉혀놓고 별 얘길 다 하네.  
 연화 (연민의 빛으로 보는데)  
 설씨 많이 취했나보다.(표정 풀며 화제 돌리는) 요즘 금천은 왜 그렇게 뜸한거야. 너 뭐라구 했어?  
 연화 (짜증) 금천 애길 왜 나한테 물어? 내가 알게 뭐야.  
 설씨 금천이 차암 너를 좋아하지. 나이도 너하구 동갑이고, 너도 이젠 금천한테 뽐대는거 그만 해. 너무 그러면 개도 지칠거다. 마음 한번 잘 먹으면 복두칠성이 굵어보셔.  
 연화 나하구 무슨 상관?

설씨 왜 상관이 읊어. 나 금천이 우리 사위로 점찍어 났는데.  
 연화 바람이 불어야 배가 나가는거지 떡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고 있는데. 그리고 나 아직 혼인 생각 조금도 없다가.  
 설씨 처녀 애 묵혀두면 짜증만 느는 법이다. 사뇌사 탐돌이도 일찌감치 가서 자리잡고 도는게 좋은거고 시집도 일찌감치 가는게 좋은 법이야. 못한 것이나 시집살이가 매운 맛이니 해썬지 알고 보면 혼인만큼 좋은것이 어디 있다가.  
 연화 아니. 내가 왜 개하고 혼인을 해? 애기 했잖아. 난 여기 서원경 남자들 다 싫어. 촌티 짝짝 나고 얼굴 꺼머구! 남자라면 웃도 잘 입고 얼굴도 하얗고 미끈하게 서라벌 냄새가 나야지.  
 설씨 드물 먹고 주정하냐. 삼년 묵은 물박달 방망이 같이 매끄러운 사내들 다 필요 없다. 그런 사내들 먹어보면 의외로 개떡 수제미야. 그만큼 그 값들 하는거야. 공연히 바람 들어 나대지 말고 암전히 있다가 금천이랑 혼인할 생각이냐 해. 보리밥엔 된장이 제격이다. 내년쯤엔 너하고 혼인 시킨후 나도 이 남석천 떠나 금천이가 살고 있는 부강포로 갈생각이야 이것야.  
 연화 서라벌에서 서원경으로 수도 옮기면 아버지도 여기 와 사실지 모르는데 어머니가 잘도 그러시겠다. 또 부강포 가선 뭐 먹고 살려구?  
 설씨 거긴 서해에서 들어오는 해산물이 얼마나 많은지 조기로 부채질을 하고 미역으로 행주 삼고 명태로 부지깽이 한다더라. 정 안되면 초사흘하고 보름에 한번씩 터지는 배 고사떡만 얻어 먹어도 충분히 산단데 뭐.  
 연화 어머니나 혼자 가서 살아! 내가 미쳤어? 난 설매랑님 아니면 다른 남자 싫어!  
 설씨 (보다가 한숨 쉬며) 오늘 다녀간 스님이 말씀 하시더라. 너랑 설매랑이 인연 되는거 허언이 아니라고.  
 연화 (놀라) 진짜 그랬단 말야? (실망으로 변하며) 에이, 땡중 아냐 그 스님?  
 설씨 나중에야 그 분이 누군지 알아봤다. 일륜스님 이시더라.  
 연화 (눈 동그래지며) 정말? 우리 신라의 삼국통일도 미리 예견하시고 사람의 길흉화복도 알아보신다는? (얼굴 환해지며) 아싸! 내가 진짜 설매랑님이랑 인연이 된다는거네?  
 설씨 나중에 니 자식 (말 끊고 잠시 생각하다) 아니 니가 아끼는 가장 중요한 것을 잃게 된다고 하시는데 넌 아무렇지도 않냐?  
 연화 가장 아끼는 중요하게 설매랑님 말고 또 뭐가 있어. 그리고 또 뭘 상관이야. 시침 딱 떼고 안내놓으면 되지.  
 설씨 (한숨)

2막

1장

화랑들의 검무가 풍월주의 독무로 시작되다가 어느 순간 다같이 합류하며 자로 잰듯 일사분란한 절도 있는 군무.

**(노래3. 화랑들의 노래)**

일찍이 양산 나정 우물가에 신령스러운 모습.  
기이한 형용으로 모습을 비추신 헝거세왕.

충! 우린 충성으로 임금을 섬긴다.

그 광명 이어져 삼국을 통일한 우리 신국.  
신을 받들며 신라를 지키는 우린 화랑이다.

효! 우린 효도로써 아버이를 섬긴다.

청춘의 짧은피를 나라에 바치겠다 맹세속에  
오늘도 우린 신국의 산하를 누빈다.

신! 우린 믿음으로 벗을 섬긴다.

누가 죽음을 두려워해 나가기를 저어하느냐.  
살아서도 화랑이고 죽어서도 화랑이어라

무! 우린 싸움에 임해서 물러남이 없다.

신국의 살아있는 모든 것에 경의를 표하고  
적국의 침략자들을 단칼에 물리치자.

백! 우린 산 것을 죽임에는 가림이 있다.

한번 가면 다시 못을 내 청춘  
망설임과 비겁함은 없다.  
해와 달도 우리를 비춘다.

말발굽 소리 요란하다  
번뜩이는 칼을 높이 들어 기개를 펼쳐라.

나가자 나가자 화랑이여  
나가자 나가자 화랑이여

군무가 끝나고 땀을 닦으며 각자 쉬는 화랑들.  
어딘지 모르게 두패로 나누어져 있는 느낌이다.  
풍월주 신공을 우두머리로 한 모습과 설매랑을 비롯한 소수의 그룹이다.

신공 (둘러보며) 여기가 거열주에서 분리된 서원경이군 그래. (빈정대듯) 왕  
께서 서라벌에서 이 곳으로 수도를 천도하겠다고 말씀하셨다지. 저  
상당산성의 개축도 그래서 시작한거구. 넓지도 않은 이곳으로 옮겨  
뭘 어찌하겠단건지.

화랑1 말도 안됩니다. 서라벌의 귀족들이 그걸 가만히 보고 있겠습니까.

신공 내 말이 그 말이야. 요즘에 왕께서는 너무 독단적으로 모든일을 처리  
하시려 한단 말이지. 통일을 이루기 전처럼 화백회의 역시 제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고 상대등도 예전처럼 제대로 수행을 못하고 있어.  
차라리 인명 왕자께서 왕위에 오르셨다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텐데  
말야. 이봐 부제.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설매랑 (단호히) 저는 정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오직 신라를 위협하는 무  
리로부터 나라를 지키는것에만 매진할 따름입니다.

신공을 비롯한 무리들 알게 모르게 설매랑을 비웃는 표정이다.

설매랑은 담담한 얼굴. 그리고 설매랑을 둘러싼 소수의 인원은 신공측 무리들의 표정  
을 보고 화를 참는듯한 얼굴이다.

신공 (코웃음) 그래? 그러면 이 곳으로 수도를 옮긴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  
하나.

설매랑 감히 풍월주께 제 생각을 말씀 드리자면 왕께서 천도의 뜻을 가지고  
계신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 됩니다.

신공 (얼굴 찡그리며) 일리가 있다? 신국의 시조이신 헝거세왕께서 서라벌  
을 수도로 터 잡으신 그 700년의 세월을 한순간에 뒤로 하고 이곳으  
로 수도를 옮기시는게 일리가 있다?

설매랑 이전처럼 통일되기 전이라면 응당 서라벌이 최적의 수도일 겁니다.  
하지만 서라벌은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까닭에 요새로써는 손색이  
없으나 통일된 신국의 중심이 되기엔 알맞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동남쪽으로 치우친 까닭에 서쪽과 북쪽에 대한 통치가 윤희하지 않고 동쪽의 바다로 왜군이 침입할 경우 속수무책으로 당할 우려도 있습니다.

신공 (빈정대듯) 왜군이 무서워 도망간단 뜻이 아닌가.  
 설매랑 이미 백제땅을 병합하고 대동강 이남의 고구려 땅까지 얻은 마당에 그런 위험 부담을 안고 서라벌을 도성으로 유지시킬 이유가 없단 생각입니다.  
 신공 이제 보니 부제는 아주 겁이 많군 그래?  
 설매랑 .....  
 신공 (크게 호탕하게 웃곤) 그런 나약한 정신으로 어찌 우리 화랑부곡의 2 인자가 될수 있겠는가. 부제는 좀 더 담력과 용감함을 기를 필요가 있어. (지도 건네며) 우린 관아에 들러 이 곳 총관께 인사를 드릴 것이니 부제는 서원경의 산세와 지세를 확인해 빠진곳이 있으면 지도에 보충해 주게. (돌아보며) 가자.

신공을 따라 퇴장하는 화랑들.

남아있는 설매랑측 소수의 화랑들 화가 나 설매랑에게 다가온다.

화랑2 아무리 풍월주라도 명색이 부제이신데 어찌 이리 모욕을 줄 수 있답니까.  
 화랑3 풍월주 뿐만 아니라 저 낭도들의 표정을 보았습니까. 감히 방자하기 그지 없습니다.  
 설매랑 (담담히) 놔두거라.  
 화랑4 어찌 덕이 없는 저런 인간을 풍월주로 모셔야 합니까.  
 화랑3 흠돌님이 27세 풍월주가 되시고부터 이상하게 변했습니다.  
 화랑2 맞습니다. 인품과 무예로 풍월주를 임명하는게 아니라 점점 흠돌님의 사조직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화랑3 흠돌님은 풍월주에서 물러나시고도 계속해 영향력을 발휘하려고만 합니다. 그 후의 풍월주이신 원선님을 힘없는 허수아비로 만들고 30세 풍월주 천관님은 흠돌님의 사위였다 31세 풍월주 흠연님은 그 아들로 임명하고 지금 풍월주도 흠돌님의 조카이지 않습니까. 낭도 부곡이 이상하게 변질 되었습니다.  
 화랑4 소문이 사실인거 같습니다. 흠돌님의 따님이신 김씨 부인을 왕께서 멀리 하시기 때문에 흠돌님께서 무척 화가 나 왕을 원망하고 계시다고 그러던데.  
 화랑3 나도 들었네. 흠돌님이 가야파 세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왕께서 김씨 부인을/

설매랑 그 입들 다물라!

화랑들 입 다문다.

설매랑 함부로 입들 놀리지 말아라. 너희들 지금 한 말이 풍월주를 비롯한 저들 귀에 들어간다면 당장 이 자리에서 숨을 놓게 될 것이다. 아무 말 말고 저들의 행동을 그저 살피고만 있거라. 서라벌로 다시 돌아갈 때까지는!  
 화랑들 예, 부제.  
 설매랑 (지도 건네주며) 우암산에 올라가 서원경을 살펴보도록 하거라. 난 서남쪽으로 내려가 볼 것이다.

## 2장

나무 다리 위에 앉아 노래를 부르고 있는 연화.

### (노래4. 연화의 노래)

이 세상 쓸쓸한 것이 많지만  
 오지않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만큼  
 하염없는 것이 어디 있을까.  
 그 기다림의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  
 그저 나는 알지 못하네.  
 한평생의 기다림.  
 하염없는 기다림의 세월들.  
 그대 오기는 오느니라. 이렇게 다리 위에서 나는 서있는데  
 꼭 한번은 지나갈 것이라는 믿음으로 나는 기다리고 있는데.

노래 끝나고 하염없는 얼굴로 앉아 흘러가는 냇물을 바라보고 있는 연화.

금천 딱한 얼굴로 그런 연화를 바라보다가 다가와 옆에 앉는다.

금천 냇간간 사람처럼 허구헌날 여기 앉아서.... 넌 어머니 돌아가시게 한 이 다리 지긋지긋하지도 않냐.  
 연화 (보지도 않고) 서원경에 볼 일 다봤으면 해지기 전에 어서 부강포로 떠나시지.  
 금천 아직도 그 땡중말 믿고 있는거야. 니 인연이라는 설매랑?  
 연화 일룬 대사님이시다. 신라 제일의 도력을 지니신. 함부로 말 쉽게 하지 마!

금천 그래서 만나면 뭐 어떡할려구. 설매랑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부디 저와 인연을 맺어 주십시오. 그럴려구? 꿈깨라 꿈깨!  
 연화 (화가 나 별떡 일어나며) 제발 너 우리 주막에 얼굴 안보이면 안되겠니. 반가와 하는 사람도 없는데 도대체 왜 우리집엘 들러?  
 금천 돌아가신 니 어머님 내게 간곡히 부탁 하고 가셨으니까.  
 연화 (빈정대는) 어떡하든 나 부강포로 데리고 가 혼인 하라구?  
 금천 사실 우리 벌써 3년전부터 부부나 마찬가지로잖아. 그렇게 어머니 이 다리 건너다 불어난 물에 휩쓸려 떠나가지만 않으셨어두.  
 연화 누가 부부야? 뚫어진 입이라도 말 그렇게 함부로 하는게 아니냐?  
 금천 (웃으며) 넌 그렇게 딱 토라져 화낼때가 제일 이뻐.  
 연화 (짜증) 안가?  
 금천 (능글맞게 웃으며) 더 이쁘네. 내 보름후에 또 들르게. 명년까지만 니 그 헛기꺼리 봐주고 그 다음엔 강제로라도 부강포로 데리고 가 내 색시 만든다?  
 연화 (자리에 주저앉는다) 내가 미쳐~

금천 씩 웃으며 다리에서 내려간다.  
 그러다 맞은 편에서 오는 설매랑과 마주친다.  
 스쳐 지나가는 두 사람.  
 금천 마땅찮은 얼굴로 설매랑을 돌아본다.

금천 복색을 보니 화랑인가 본데 얼굴도 허여멀게 해가지고 차암 귀티 나게 생겼네.

부러움과 시기섞인 얼굴을 보며 퇴장하는 금천.  
 설매랑, 주위 둘러본다.

설매랑 여기가 남석천이란 곳이군. 왜 일룬 스님은 서원경엘 가면 이 곳을 가보라고 하셨을까. 분명히 무슨 뜻을 가지고 말씀 하셨을텐데... (둘러보다) 지형을 보니 조금만 비가 와도 물이 넘쳐나겠구나.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맘고생이 심하겠어.

설매랑, 다리 위에 올라선다.  
 그러다 자리에서 일어나 돌아서는 연화와 얼굴 마주친다.  
 설매랑의 얼굴을 보고 놀라 입을 벌리고 멍하니 서있는 연화.  
 설매랑, 역시 고개 갸웃하며 잠시 연화 바라보다가

설매랑 나를 아시오 아가씨는?  
 연화 설매랑님 아니신가요?  
 설매랑 어떻게 나를 아시오.  
 연화 아주 오래전부터 설매랑님의 인품과 풍모를 들어왔고 그리고 또 아주 오래전부터 설매랑님을 마음에 두고 혼자 연모해 오며 설매랑 님을 만날날을 손꼽아 기다려 왔습니다.  
 설매랑 나는 그대를 오늘 처음 보오.  
 연화 일룬 대사님께서 설매랑님과 제가 이곳에서 만나게 되어 인연을 맺을 것이라고 오래전 말씀 하셨습니다.  
 설매랑 (놀라) 기이한 일이오. 이번 원행전 서라벌에서 일룬 대사께서 날 찾아오셨소. 서원경에 들르게 되면 남석천에를 가보라고.  
 연화 .....  
 설매랑 아가씨는 어디 사는 누구요?  
 연화 저는 요 앞에서 혼자 밥을 팔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3년전에 이 다리를 건너다 불어난 물에 휩쓸려 돌아가시고 비록 저는 1두품이지만 저의 아버지는 김유신 장군의 셋째 아드님이신 김서현 나리 이십니다.  
 설매랑 그럼 원정공? 원정공께서 어떻게 아가씨의 어머님과 인연을 맺은 것이오?  
 연화 상당성을 개축하러 내려오셨을 때 만나셨다 들었습니다.  
 설매랑 허어 그런 인연이 있었군요.  
 연화 요기는 하셨는지요.  
 설매랑 아직이오.  
 연화 시장하실텐데 저희 집으로 가시겠습니까.  
 설매랑 기꺼이 그러리다.

### 3장

**밤, 호롱불 켜져있는 주막.  
 평상위 조출한 주안상 앞에 연화와 설매랑 앉아있다.**

설매랑 참 신기한 일이오. 오늘 낮 다리 위에서 아가씨를 뵈었을 때 전혀 낯설지 않던 그 느낌이.  
 연화 저 역시 그랬습니다. 아침에 잠시 집을 나간 설매랑님이 한나절만에 돌아오는 사람 같았습니다.  
 설매랑 (미소 짓다 얼굴 약간 어두워진다)  
 연화 왜 갑자기 그늘이 생기는지요.  
 설매랑 그런데 왜 그 첫만남때 가슴 속에 잔잔한 슬픔 같은 것이 밀려들어왔

연화            는지, 무슨 이을배반인지 모르겠습니다.  
 (망설이다) 오래전 일룬 스님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설매랑님을 만나  
 게 된다면, 설매랑님과 연을 맺는다면 나는 가장 중요한 것을 잃게  
 될거라고... 그런데 이렇게 만났습니다. 이렇게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  
 다. 설매랑님이 느꼈던 그 알수 없는 슬픔의 정체는 어렴풋이 예견된  
 그 좋지않은 미래의 기가 느껴졌던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설매랑        그렇다면!  
 연화         (보면)  
 설매랑       우리 둘이 함께 있어 그 예언대로 만약 뭔가가 잘못된다면, 그 때는  
 후회 하실겁니까.  
 연화         선택의 책임은 본인이 지는겁니다. 왜 후회하겠습니까.  
 설매랑       우리 둘이 함께 있어 그 예언대로 중요한 것을 잃는다면 슬퍼하실 겁  
 니까.  
 연화         설매랑님과 함께 하는 시간은 그 어떤 것보다도 버금할수 없습니다.  
 설매랑       (미소) 운명은 사람이 주체가 되어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것이오. 우  
 리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비록 운명일진 몰라도 이후로는 그것  
 에 순응하지 않고 내 의지로 앞날을 개척해 나갈 것이오.  
 연화         저도 그럴것입니다.

두 사람, 사랑스럽게 바라본다.

**(노래5.연화와 설매랑의 이중창)**

극화와 매화가 꿈속에 화사하더니  
 그대를 만나려 그렇게 눈부셨나 보오 (연화)

극화와 매화가 아무리 고와도 춘추단절이리  
 그대는 은은한 향기가 되어 천년을 갈것이오 (설매랑)

나는 꽃이 되어 그대를 위해 향기를 가질테고  
 나는 기러기가 되어 그댜 위해 정절을 지키리다 (연화)

꽃본 나비 물 본 기러기 람화봉접인데  
 꽃이 곱고 물이 맑아 차마 꺾지를 못하겠네 (설매랑)

붉은 꽃은 낙화가 되기전에 따는 것이오.  
 그대도 나도 청춘, 살보다 빠르게 청춘이오 (연화)

그대를 만나려고 지난 스무해 난 혼자였나 보오.  
 남산의 청솔이 변해도 우리 사랑 변치 맙시다. (설매랑)

내가 나만이 아니고 그대 사랑이 있어야  
 비로소 온전한 내가 됩니다. (연화)

설매랑, 연화의 손을 던지지 잡는다.

이리 고운 가냘픈 손목, 차마 꺾일까 잡지를 못하겠소  
 가까이 더 가까이 더 이상 가까워질데가 없도록  
 다가 오시오. (설매랑)

감시다 감시다 노다가 감시다.  
 저 달이 떴다 지도록 놀다나 감시다. (연화)

짧은 밤, 원망스런 저 그믐달 붙잡아놓고  
 오늘같이 좋은날 길고 길게 새웁시다. (설매랑)

연화, 설매랑의 품에 안기며 무대 어두워진다.

**(암전)**

아침이다. 의관을 갖추는 설매랑을 연화, 착잡한 얼굴로 바라보고 있다.

연화            다시 오실겁니까.  
 설매랑        당연한걸 왜 물어보십니까.  
 연화            일생을 누군가를 기다려야 하는 돌아가신 어머니의 삶을 절대로 이어  
 받고 싶지 않습니다.  
 설매랑        난 반드시 다시 돌아옵니다.  
 연화            정말 고품을 버리실수 있겠습니까. 잃는 것이 너무나 많을것입니다.  
 설매랑        그 옛날 숙명 공주께서도 고품을 초개같이 버리고 왕궁을 나와 사랑  
 하는 정인과 같이 했습니다. 하물며 일개 6두품에 불과한 내가 잃을  
 것이 있다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기다리십시오. 이번에 서라벌로 돌아  
 가 왕을 도와 처리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마치고 돌아오겠습니다.  
 연화            정말 다시 오시는 겁니까. 약속 하시는 겁니까.  
 설매랑        맹세 합니다. 왜 불안해 하십니까.  
 연화            설매랑님이 아닌 나 혼자만의 열정, 나 혼자만의 의지로 인해 역지로

우리가 이런 인연을 맺지 않았을까 하는 걱정 때문입니다.

**설매랑** 그건 연화 아가씨의 공연한 노파심입니다. 우리 결국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연화 아가씨의 의지가 아니라 필연적으로 조우하게 됐을 운명, 아니면 석가모니불의 뜻입니다. 오래전 일륜스님이 연화 아가씨에게 나와의 만남을 예견해준 것이나 날 이 남석천 가에 인도하신 것들은 어찌하면 우리가 모르는 석가모니불의 대자대비한 깊은 의미가 있을 것이라 생각 합니다. 물론 앞으로는 우리가 개척해 나가겠지만 여태까지의 우리 인연을 믿으십시오.

**연화** 기다리겠습니다.

**설매랑** 불안해 하지 마십시오.

**연화** 알겠습니다.

**설매랑** 초조해 하지 마십시오.

**연화** 그러겠습니다.

**설매랑** 마음을 편하게 가지십시오. 잠시의 이 헤어짐은 우리가 같이 있기 위한 씨뿌림입니다.

**연화** 설매랑님이 생각날 때마다 사뇌사에 올라가 부처님께 기도 하겠습니다.

**설매랑** 그래야 연화 아가씨답습니다. 나오지 마십시오. 사모하는 사람에게 등을 보이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나가면 그저 다른 때처럼 연화 아가씨의 일상으로 돌아가십시오. 마음 편히 날 기다리십시오.

**연화** 그러겠습니다.

**설매랑, 연화의 머리칼을 한번 쓰다듬어준후 잠시 바라보다가 퇴장한다.**

**연화** 멍멍한 심정으로 그런 설매랑의 뒷모습 보다가 결심한 듯 돌아서 걸레를 들고 평상을 닦는다.

#### 4장

**화랑들, 무술 연습을 하고 있다.**

**한쪽에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던 신공에게 병사 한명 등장한다.**

**병사** (무릎 꿇으며 서찰을 내민다) 호성장군께서 보내신 서찰입니다.

**신공, 서찰을 받아 읽어본다. 얼굴 환해지며 화랑들을 둘러본다.**

**신공** 모두 멈추어라!

**화랑들, 무슨 일인가 연습을 멈추고 신공을 바라본다.**

**신공, 비장의 얼굴로 화랑들을 둘러보다가**

**신공** 화랑중의 화랑은 누구인가.

**화랑들** (다같이) 풍월주이십니다!

**신공** 그대들의 대장은 누구인가.

**화랑들** (다같이) 풍월주 신공님이십니다!

**신공** 풍월주중의 으뜸은 누구인가.

**화랑들** 흠돌님이십니다!

**신공** 그렇다. 흠돌님께서 서찰을 보내오셨다! 이제 드디어 때가 되었다고!

**설매랑** 때라는건 무얼 말씀하시는건지요 풍월주.

**신공** 일찍이 근본도 모르는 보룡이라는 여자가 어찌다 무열왕의 총애를 받아 자식을 생산, 그 핏줄이 감히 왕이 되어 이 대신라를 다스리려 한다! 우리가 어찌 그런 그를 따르겠는가.

**화랑들 일부에서 “울소!” “울소!” 동의하는 소리 들린다.**

**신공** 왕은 우리들이 존경해 마지않는 26세 풍월주셨던 진공님을 호성장군 직에서 강제로 내쫓으려 한다!

**화랑들 “안될 말이오!” “우리 화랑들을 우습게 보는 처사요!” 동요하는 분위기.**

**신공** 흠돌님께서 벌써 양명궁과 상대등 군관의 집을 포위하셨다. 우리는 이 길로 서라벌로 가는 즉시 흠돌님과 합세해 신문왕을 폐하고 새로운 왕을 내세울 것이다!

**설매랑** 그것은 반란이요!

**신공** 반란이 아니다! 단지 신라의 정통을 바로세우는 것이다!

**설매랑** 이미 승하하신 문무왕께서 임명하신 왕이오. 풍월주께선 지금 모반을 꾀하고 있소.

**신공** (개이지 않고) 듣거라. 새로운 왕을 모실자는 앞으로 나오거라!

**설매랑과 두세명의 화랑들을 남겨놓고 화랑들 전원 앞으로 나온다.**

**신공** 부제는 이제 파악이 되는가?

**설매랑, 신돈과 화랑들을 노려보다 칼을 빼어든다.**

신공측 화랑들 칼을 빼어드는데,

신공 (앞으로 나서며) 그대로를 있거라. 부제는 내가 처리하도록 하겠다.

신공, 칼을 꺼내들고 앞으로 나선다.

신공과 설매랑 서서히 서로를 탐색하다 드디어 싸움이 시작된다.

서로가 서로에게 만만치 않은 상대다.

그러나 점점 신공이 수세에 몰리게 되며 신공측 화랑 하나가 설매랑의 뒤로 접근하자 설매랑측 화랑 하나가 그를 쳐치한다.

그러자 전원 칼을 빼어들고 싸움에 합류한다.

설매랑, 분전하고 있으나 수적 열세에 몰리게 되고 설매랑측의 화랑들도 칼을 맞아 쓰러진다. 혼자 남은 설매랑에게 달려드는 화랑들. 베고 베이고, 마침내 칼을 맞고 무릎을 꿇는 설매랑. 그런 설매랑의 얼굴을 향하여 마지막 칼을 휘두르는 신공.

비명을 지르며 두눈을 부여잡고 바닥에 쓰러지는 설매랑.

신공 어리석기 그지없군. 이렇게 판단을 못하는 자가 부제였다니... 듣거라! 우리는 지금 즉시 서라벌로 진군한다!

병사들 (칼을 높이 들며) 만세! 만세! 흠돌님 만세! 대신국 신라 만세!

시신들을 남겨두고 신공을 비롯한 부하들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퇴장한다.

잠시후 일륜과 구진 등장한다.

놀라 재빨리 달려와 시신들을 살펴보는 두 사람.

구진 모두 죽었나 봅시다 스님. 다들 숨이 멎어있습니다.

일륜 설매랑을 찾거라.

갑자기 시신들 틈에서 희미한 신음소리 들린다.

둘러보는 두 사람.

갑자기 피를 울컥 토하며 몸을 꿈틀대는 설매랑.

설매랑에게 다가가는 일륜과 구진.

구진 설매랑님 이십니다.

일륜 (몸을 부축해 상체를 들어본다) 이보게 설매랑. 설매랑!

설매랑 누구...십니까.

일륜 나 일륜일세.

설매랑 스님... 일륜 스님. 저들이 서라벌로 향했습니다. 막아야 합니다.

일륜 말을 멈추거라. 위험해질수도 있어.

설매랑 도성이 위험합니다.

일륜 걱정 말거라. 그들은 결코 성공하지 못할것이다. 어제밤 밤하늘을 보니 운기가 역행되지 않고 바르게 가고 있었다.

설매랑 (다행인 듯 한숨 쉬는) 그런데 왜 이리 어둡습니까. 지금이 한밤중입니다.

구진 흰한 대낮인데요.

설매랑 그런데 어둡습니다. 컴컴하지만 합니다. 왜 이런 겁니까. (눈 비비며) 안보입니다. 제가 눈을 다친 겁니까.

일륜 나무관세음 보살.

설매랑 내 두 눈. 내 눈! 어떻게 된겁니까.

일륜 (안타깝게) 이 모두 부처님의 뜻이다. 설매랑 그대를 살리신것도 그대의 두 눈을 멀게 하심도...

설매랑 (울부짖으며) 안됩니다 스님. 절대 안됩니다. 난 연화를 봐야 합니다. 이 꼴로 연화를 만나려 갈순 없습니다. 그 여인을 다시 봐야 합니다 스님...

일륜 나무 관세음 보살...

### 3막

#### 1장

일륜대사 천천히 걸음 옮기고 있는데

구진 뭔가 할말이 있는 듯 망설이다 일륜을 부른다.

구진 스승님.

일륜 (걸음 멈추고 본다)

구진 (망설이다) 안가보십니까.

일륜, 무슨 말 하려는지 알고 있는 듯

잠시 구진 바라보다 시선 돌려 풍광을 바라본다.

일륜 (감탄) 역시 화은대사님이시구나.

구진 (불만) 이미 오래전 입적하신 화은대사님 얘기는 갑자기 왜 꺼내십니까

일륜 산세를 보거라. 높지는 않으나 골짜기가 깊지 않느냐. 게다가 이 산은 중이 바리를 들고 시주를 구하는 형세다. 중을 기르기에 흠 잡을 데가 없는 땅이지. 골짜기에서 많은 이들이 움직이고 소리를 질러도

구진 밖에서 보기에는 개미 한 마리 보이지 않을 정도로 조용한 산이다.  
(불만 거두고 호기심으로 둘러보며) 그래서 화은대사님께서 이 양성산에 일모성을 쌓으신 겁니까.

일륜 그래. 승병들을 불러모아 불경과 무예를 익히도록 해 우리 신라가 통일  
일의 대업을 이루는데 지대한 역할을 하셨느니라.

구진 (감탄의 표정으로 고개 끄덕이다 다시 생각난 듯) 스승님. 남석천의  
그 처자/  
일륜 (말 끊으며 감탄하는) 허어, 그저 별판에 불과한데 참 상스럽구나.  
구진 (불만이지만 호기심) 이번엔 또 뭔데요.  
일륜 저 별판 말이다. 들녘이 따뜻하고 명량한 기운이 감도는구나. 그 주위  
를 둘러싼 산야에 정기가 슬기롭고 총명하고 온후한 덕망이 안개와  
무지개처럼 피어나는구나. 단언컨대 앞으로 문(文)과 의(義)가 크게 일  
어나 숭상되어 앞으로 문의로 불리울 것이다.

구진 문의요 스승님?  
일륜 육로와 수로가 사통팔달했으니 마을과 인물이 번성할 것이며.  
구진 사람두 없는 별판에 무슨 문의가 일어난단 말씀을 하십니까.  
일륜 (갑자기 탄식하는) 허어~ 그런데 어이하라 앞으로 천년 뒤에 이 땅의  
운세가 몰아래 잠기게 될것이니.... 그때 가서 사는 이들은 새 터전을  
마련케 될 것이다.

구진 이 별판이 물에 잠긴단 말씀이십니까. 무슨 말도 안되는...  
일륜 하지만 왕께서 이곳에 올 것이다. 왕께서 거처하시게 될 궁궐도 이곳  
에 세워질 것이다.

구진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십니까. 그건 스승님께서 틀리셨습니다.  
지난번 흙돌의 반란을 진압하신후론 일제 서라벌 밖으로는 출타하지  
않으시는데요.

일륜 주성이 아닌 별궁이다. 왕께서는 잠시잠시 이 곳에 머무르시며 정사  
를 돌볼 것이다.

구진 (무슨 말인가 잠시 풍광 둘러보다 다시 생각난 듯 일륜 본다) 스승님  
남석천의 그 여자/  
일륜 (알고 있었다는 듯) 그 여자가 궁금한게냐.  
구진 에 스승님. 아이 아버지의 생사도 모르면서 하염없이 기다리는데 너  
무 딱하지 않습니까.  
일륜 그래서 어떡하겠단 말이나.  
구진 사실대로 말해주십시이.  
일륜 그대로 내버려 두거라. 부처님의 뜻이다.  
구진 부처님께서는 항상 자비로 중생을 대하거라 하셨거늘 어찌 그리 스승  
님께선 그 여자에겐 모질게 대하십니까.

일륜 다 그 여자를 위함이다.  
구진 그럼 그 여자는 평생 그렇게 남편을 기다려야 하는 겁니까. 너무 가  
혹한 일입니다.  
일륜 나무 관세음 보살...

### 일륜 다시 발걸음 옮기는데

구진, 불만의 얼굴로 일륜의 뒷모습 보다가 문득 생각난 듯.

구진 스승님.  
일륜 (돌아보는데)  
구진 출가한 후론 한번도 속세의 집에 들른적이 없었습니다.

## 2장

연화, 평상에 앉아 아이에게 밥 떠먹이고 있다.

금천 역시 흐뭇한 얼굴로 옆에 앉아 아이(5)를 바라보고 있다.

연화 우리 아기 잘도 먹네.  
아이 (손가락으로 생선 반찬 가리키면)  
연화 그래 굴비 먹고 싶어?  
아이 (고개 끄덕인다)  
금천 많이 먹어. 삼촌이 또 갖다 줄테니까.  
연화 (굴비 발라 아이 수저위에 놓아주며) 이제 여기 그만 와.  
금천 (연화 보면)  
연화 너한테 미안해서 그래. 그리고 너도 이제 나 단념하고 다른 여자 만  
나서 혼인해.  
금천 (잠시 보다가)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야.  
연화 아무리 니가 이렇게 우리 모자한테 극진해도 나 너한테 안가. 난 설  
매랑님 기다려야 해.  
금천 (딱한 듯) 벌써 5년이 지났어. 올 사람이면 벌써 널 찾아왔다.  
연화 일륜 스님이 말했어. 설매랑님과 난 한평생 같이 있게 될거라고.  
금천 아직도 그 땡초가 한 말을 끝이곧대로 믿는거야? 제발 정신좀 차려  
라 어?

금천, 답답한 얼굴로 연화 바라보는데 구진 들어온다.

구진 (평상 앉으며) 국밥 한그릇 말아주시오.

연화 예. 잠시만 기다리세요.

**금천, 일어나는 연화에게 통명스럽게**

금천 앉아서 애기 먹던밥 마저 먹이고 있어. 내가 준비해 올테니까.

**금천, 퇴장한다. 연화 그런 금천의 뒷모습 보며 미안한 표정인데.**

구진 (아이 보며) 아주 인물이 환합니다.

연화 (자랑스럽게) 아이 아버지를 쑥 빼다박았거든요. 넓은 이마, 오희한 코에 짙은 눈썹. 신라 제일의 인물이었습시다.

**연화 문득 설매랑 생각에 목이 매이는 듯 잠시 슬픈 표정 짓다가 아이를 보고 마음을 다잡은듯 구진을 본다. 그러다 고개 갸웃하는.**

연화 그런데 스님.

구진 왜 그러십니까.

연화 어디 절에 계신 분인지요. 많이 낯설지가 않습니다.

구진 (당황하며) 무슨. 저, 전 여기 처음 왔습시다.

**금천, 국밥 든 소반 들고와 구진 앞에 내려 놓는다.**

**구진, 고개 돌리며 수저 드는데, 일련 등장한다.**

일련 (노기띤) 네 이놈!

**구진, 일련을 보고 깜짝 놀라 평상에서 내려와 재빨리 무릎을 꿇는다.**

일련 여기가 네가 태어난 팔봉산 마을이나.

구진 스승님 여길 어떻게 알고....

일련 갑자기 부모가 보고 싶다며 집에 다녀온다고 할때부터 이상하게 생각했다. 설마설마 했는데 네 이놈!

구진 잘못 했습니다 스승님. 아비 없이 어떻게 살고 있을까 하두 걱정되어서...

연화 (일련 알아봤다) 스님! 일련스님... 맞으시죠?

일련 (대꾸없이) 일어나거라. 어서 가자.

구진 (망설이는데)

연화 (일련 앞에 무릎 꿇으며) 스님. 스님 이대로 가시면 어떡한단 말입

니까. 부디 설매랑님의 안위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분이 살아 있는지 죽었는지, 살아있다면 왜 이곳에 오지를 않는것인지.

일련 (구진 보며) 허어 일어나지 못할까.

**구진, 마지못해 일어나는데 아이 평상에서 내려와 연화의 품에 안겨 일련을 본다. 아이의 초롱초롱한 눈과 시선 마주치는 일련. 마음 약해질까봐 얼른 고개 돌린다. 구진 그런 일련을 보곤 재빨리 아이를 안아들고 일련 앞에 보여준다.**

구진 스승님. 아이가 설매랑님과 똑같이 생겼습시다.

일련 (시선 피하여다가 어쩔수 없는 듯 아이를 본다) 눈빛이 총명함이 가득한게 지 아비와 똑 닮았구나.

금천 스님. 아이 아버지에 대하여 아시는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지요.

**일련, 말없이 연화 모자를 바라보다가 단호하게.**

일련 떠나거라.

연화 예?

일련 아직 늦지 않았다. 이곳을 떠나거라. (금천을 가리키며) 저 자와 함께 이곳을 떠나 다른곳으로 가거라.

연화 스님, 전 설매랑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 아이에게 아비를 보여줘야 합니다. 제발 불쌍한 우리 아기를 위해서도/

일련 (말 끊으며) 그 아이를 위해서다!

연화 (놀라 보는데)

일련 아이를 위해서 이 곳을 떠나라는 것이다. 아비를 만나면 니 아이가 잘못될 수도 있다.

연화 무슨 말씀이십니까.

일련 이 곳에 니들 모자가 계속 거처를 둔다면 그 자와 니들 모자가 만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댓가는 아주 크다는걸 명심해야 한다. 내 일찍이 너와 니 어미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너와 설매랑이 인연을 맺을수 있게 되는 대신에 아주 소중한 것을 부처님께 바쳐질 운명에 처할거라고.

연화 그 소중한 것이 자식이었습니까. 잔인하십니다.

일련 석가모니께서 미리 정하신 일이다.

연화 정녕 그리될 수밖에 없는 것이입니까.

일련 모든 것을 가질수 없는 것이 사람의 운명이다. 선택에는 책임이 따르는법. 어느 한 것을 취하면 또 다른 것을 잃는법이다.

연화 상관 없습니다. 설매랑 님을 다시 만날 수 있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일룬 너는 어미가 되어 어찌하여 아이를 위험에 방치시키려 하느냐.  
 연화 어느 어미가 자기 아이를 위험에 빠트린단니까.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운명보다 더 질긴 것이, 더 강한 것이 사람의 의지입니다. 설매랑님도 그렇게 말씀 하셨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룬 이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다. 부처님께서 미리 정해 놓으신 것이다.  
 연화 부처님의 그 뜻을 알고 저를 이 인연의 길로 이끈 것이 스님입니다. 스님은 그 운명을 피할수 있는 방법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아닌지요? 떠나라는 말씀만 하지 마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일룬 내가 너를 이끈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니가 품었던 설매랑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부처님을 움직인 것이다. 너를 불쌍히 여겨 방책을 말해주는데도 어찌하여 내 말을 듣지 않는것이나.  
 연화 오래전 스님은 설매랑님과 제가 한평생을 같이 있게 될것이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건 부부로 해로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리 떨어져 살아야 하는지요. 그 말씀은 허언이신 겁니까.  
 일룬 부부이되 부부로 살지 못할 것이다.  
 연화 상관 없습니다.  
 일룬 일생을 괴로움으로 살아야 할 것이다.  
 연화 같이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행복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일룬 (하늘 보며 탄식) 허허~ 어찌 이리 집착 하는가.  
 연화 스님.  
 일룬 허어...  
 연화 만나게 해주십시오. 설매랑님도 그 분의 핏줄을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랑스러워 하실겁니다.  
 일룬 만날 수 있게 될지는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것은 오직 부처님만 아실뿐. (아이를 바라보다가) 이것이 어찌면 니 아이를 살리기 위한 마지막 방법이다.  
 연화 (일룬 본다)  
 일룬 눈은 있으나 볼 수 없는자, 사내로 태어났으나 사내가 아닌 자들이 나타나면 절대로 이 집에 들이지 말도록 하거라.  
 연화 어렵습니다 스님.  
 일룬 (구진 보며) 어서 일어 나가라. 니 놈 때문에 더 일이 복잡하게 되는구나.

일룬, 돌아서 걸음 옮긴다.

구진 안스런 얼굴로 연화 모자를 바라보다가 일룬의 뒤를 따라 퇴장한다.

### 3장

두 손을 합장하고 석탑을 돌고 있는 설매랑.  
 길다란 검은 천으로 안대처럼 두 눈을 가리고 있다.

설매랑 나무 관세음 보살 나무 관세음 보살...

그렇게 관세음 보살을 외치며 석탑을 도는 설매랑.

#### (노래 6. 설매랑의 노래)

처음 만남때를 생각하니 우린 서로가 반했네.  
 생사의 연을 맺고 아교처럼 끈끈한 사랑을 했는데  
 이렇게 증도에 헤어질줄 누가 알았으랴.  
 항상 죽음에 직면할때나  
 잠의 고갯마루를 애써 오를때나  
 또는 깨달음에 잠시 즐거울때도  
 그대 생각하지 않은적 없어  
 꿈속에서라도 그대 보기를 간절히 소망했건만  
 황량한 들판 헤메다 아침이면 다시 세상에 돌아오네.

설매랑, 허탈한 얼굴로 잠시 자리에 멍하니 서있다가 다시 석탑을 돌려 하는데

일룬 E 니 놈의 그 질긴 그리움이 문제구나. 그리움이 많으면 홍수처럼 범람을 하게 되느니, 그대로 마음을 떠나보내려 하는 것이냐.

설매랑, 소리난 쪽으로 돌아본다.

노기 띤 얼굴의 일룬 걸어와 설매랑 앞에 멈춘다.

구진, 안스런 빛으로 뒤따라오고.

설매랑 스님, 어렵게 제압했다 생각 했는데 또 다시 그리움이란 것이 마음속에서 꿈틀대고 있습니다. 태산과 같은 무거움으로 가슴을 짓누릅니다.

일룬 미련한 놈.

설매랑 가슴 깊숙한 곳에 샘이라도 있는거 같습니다. 그리움이 깊어 빠지면 빠질수록 헤어나올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일룬 그 가슴속에 내가 무엇을 키우라고 했느냐.

설매랑 가지이옵니다.

일룬 내가 왜 가시를 키우라 했는지 다시 말해보거라.

설매랑 연화와 제가 만나면 반드시 서로에게 화가 일어날터. 그걸 잊지 않기 위해 일부러 가시를 키워 서로 찔러 다침을 잊지 않게 주시시키는 것 이라고 말하셨습니다.

일륜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그 한줄기 미련으로 가슴을 물들이는 것이냐.

설매랑 스님, 저는 그 가시에 찔리더라도 장렬하게 산화되고 싶습니다. 연화 를 만나는 일이 아무리 위험하다 하더라도, 치명적 독이 될지라도 그 위험을 기꺼이 감당하고 싶습니다.

일륜 쫓쫓... 세상에 차마 끝을 보지 못하는 일들도 존재하는 것이다. 법당에 들어가 오늘도 삼천배를 드리거라.

**일륜, 잠시 설매랑 바라보다 돌아서 퇴장한다.**  
**구진, 설매랑에게 다가가 부축하려 팔을 잡으면**

설매랑 한 여인에 대한 미망에 사로잡힌 제가 스님도 어리석게 보입니까.

구진 저는 큰스님만큼 잘은 모릅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번뇌 의 크고 작음은 감히 비교할수 없는 겁니다. 법당까지 안내해 드리겠 습니다. 바람이 차갑습니다.

설매랑 잠시후 들어가겠습니다. 스님 먼저 들어가시지요.

**구진, 안스런 빛으로 설매랑 바라보며 망설이다 입을 연다.**

구진 그 분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설매랑 (고개 돌린다) 뭐라고 했습니까.

구진 설매랑님이 그렇게 보고 싶어하는 그 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 다.

설매랑 (구진의 팔을 잡으며) 정말입니까.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그 러면 됐습니다. 그걸로 만족 합니다.

구진 그 분도 설매랑님 못지않게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설매랑 보고 싶은 마음 굴뚝 같지만 연화를 위해서도 만나는걸 참겠습니다. 참아야지요. 암 참아야지요. 아직도 연화가 날 잊지않고 그리워하는걸 알았으니 더 이상 바라지 않겠습니다.

구진 있다니요? 오히려 설매랑님의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요.

설매랑 ! 아들이라니요, 스님 아들이라니요. 내가 떠나온후 그녀가 아들을 낳았습니까.

구진 (아차 싶은)

설매랑 스님, 기쁩니다. 너무 기쁩니다. 돌아가신 제 부모님께서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겁니다. 어떻게 생겼습니까. 누굴 닮았습니까.

구진 (할수 없다) 설매랑님을 뚝 빼담은 아들입니다.

설매랑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구진 그러니 이제 번뇌는 떨쳐버리고 그 분과 아이를 위해서도 불문에 귀 의하셔서 두 모자의 안녕을 축원하는 기도를 드리셔야지요.

설매랑 그래야지요, 당연히 그래야지요.

**구진, 합장하고 돌아서려는데**

설매랑 스님, 부탁이 있습니다.

구진 (보면)

설매랑 한번만, 한번만 연화와 내 아이를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구진 (놀라 일륜이 퇴장한 무대쪽 힐끗 보며) 안됩니다. 큰스님 알면 난리 납니다. 제가 이렇게 설매랑님의 아이에 대해서 말씀 드린걸 아시면 전 산문 밖으로 쫓겨 날지도 모릅니다.

설매랑 스님, 단 한번입니다. 한번만 보고 이제 속세의 인연 끊고 불가에 귀 의 하겠습니다.

구진 큰스님께서 말씀 하하지 않았습니까. 두 사람이 만나면 아주 커다란 위험에 빠진다고. 어떡하려고 이러십니까.

설매랑 (무릎 꿇으며) 부탁 드립니다 스님. 그러면 아이 만이라도 제발 아이 만이라도...

구진 (당황스럽지만 단호하게) 안됩니다, 절대 안됩니다. 두 분을 위해서도 절대 만나시면 안됩니다. 전 해드릴수 없습니다.

**구진, 재빨리 돌아서 걸음 옮겨 퇴장한다.**

설매랑 스님, 스님....

**구진을 쫓다가 방향을 못잡고 그 자리에 넘어져 흐느끼는 설매랑.**

#### 4장

오른쪽 주막 평상 위의 연화,  
잠든 아이에게 부채질을 하며 처량하게 노래 부르고 있다.

#### (노래7 연화의 노래)

파랑새야 파랑새야 저 구름위 파랑새야  
어찌하여 나의 콩밭에 머무는가

파랑새야 파랑새야 너 나의 콩밭의 파랑새야  
 어찌하여 다시 날아들어 구름위로 가는가  
 이미 왔으면 가지말지 또 갈 것을 어찌하여 왔는가  
 부질없이 눈물짓게 하며 마음 어워어 죽게 하느냐  
 나는 죽어 무슨 귀신 될까, 나는 죽어 신병되리  
 그대에게 날아들어 보호하여 호신되어  
 만년천년 오래 죽지않게 하리.  
**(향가 <청조가>)**

왼쪽 무대 위로 설매랑의 손을 잡고 구진 등장한다.

구진 비온 끝이라 길이 미끄럽습니다. 조심 하세요.  
 설매랑 고맙습니다.  
 구진 이제 다 왔습니다. 저기 보이네요. 마당 평상에 아이 재우고 있습니  
 다.  
 설매랑 (흥분되는 듯 혼잣말) 연화....  
 구진 (안스럽게 보다가) 보고 싶은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두 분  
 은 만나신 안됩니다.  
 설매랑 ....  
 구진 들어가서 어떡하든 아이 엄마를 밖으로 보낼테니 여기서 기다리시  
 지요.  
 설매랑 알겠습니다.

구진, 잠시 설매랑 보다가 연화 쪽으로 걸어간다.

구진 (걸어가며) 휴.. 내가 과연 이게 잘하는 짓인지...

구진, 평상으로 걸어가 합장한다.

구진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연화, 구진을 알아보고 평상에서 내려온다.

연화 스님. (합장하며)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뒤쪽 보며) 그런데 큰스님은..  
 구진 스승님은 오시지 못했습니다. 저만 이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연화 (서운하지만) 공양은 하셨습니다.  
 구진 아직입니다.

연화 요 며칠 큰 비가 와 장사를 임시로 접고 있어 딱히 대접해 드릴 것도  
 없는데...  
 구진 괜찮습니다.

연화, 잠시 망설이다 평상에 잠들은 아기를 한번 보고는

연화 요 앞 밭에 나가 제가 호박이라도 따와 된장이라도 끓일테니 잠시만  
 우리 아이 좀 맡아십시오 스님.  
 구진 (합장하며) 고맙습니다.

연화, 다시 한번 아이 보고는 퇴장한다.

구진, 연화가 퇴장한 것을 확인하곤 반대쪽 설매랑에게 다가간다.

구진 (팔 잡아끌며) 설매랑님, 어서 가지지요. 어서 가서 아이를 보시지요.  
 곧 아이 엄마가 들어올 겁니다. 바로 아이만 보고 나오셔야 됩니다.  
 설매랑 정말입니까. 정말 내 아들을 볼수 있습니까.  
 구진 아주 잠시입니다. 아주 잠시.  
 설매랑 고맙습니다 스님. 고맙습니다.

구진, 설매랑의 팔을 잡고 평상에 누워자는 아이에게 데려간다.

잠든 아이의 손을 설매랑의 손에 쥐어주는 구진.

설매랑 (감격에 겨워) 아들아. 내 아들아.  
 구진 전 밖에서 아이 엄마가 오는지 지키고 있겠습니다.

구진, 흐뭇한 얼굴로 두 부자를 지켜보다 퇴장한다.

설매랑 (아이를 안아 품에 안으며) 내 아들, 내 아들... 미안하구나. 니가 태  
 어난지도 이 아버지는 몰랐었다 아들아. 용서해 다오 이 무심한 아버  
 를... 니 얼굴은 볼수 없어도 (얼굴 만지며) 이 두 눈과 귀 코와 입을  
 만져보니 영락없이 돌아가신 니 할아버지구나. 대견하구나 이렇게 자  
 라줘서... 아들아.

아이, 얼굴을 더듬는 손길에 깨어난다.

아이 (영문을 몰라) 누구세요?  
 설매랑 내가 니 아버지다.

아이 아버지?  
 설매랑 그래.  
 아이 그런데 왜 이제야 오셨어요. 어머니가 매일밤 내일이면 오실거다 또  
 자고 나면 내일이면 오실거다 그랬는데. 진짜 아버지세요?  
 설매랑 그래, 내가 니 아버지다.  
 아이 어머니는 아버지가 능글하고 용감하다고 하셨어요.  
 설매랑 그래 이 아버지는 신라 제일의 용사이니라.  
 아이 아버지는 신라에서 으뜸가는 화랑이라 하셨어요.  
 설매랑 그래 이 아버지는 신라의 으뜸가는 화랑 설매랑이다.  
 아이 어머니는 매일밤 아버지를 생각하며 울며 지내세요.  
 설매랑 그랬구나 그랬구나. 미안하다 아가야.

**아이, 설매랑 품에서 나온다.**

설매랑 왜 그러느냐 아가야.  
 아이 빨리 어머니에게 아버지가 왔다고 알려야겠어요.  
 설매랑 그러면 안된다 그러면 안돼.  
 아이 왜요? 또 가실건가요?  
 설매랑 (난처한) 그제...  
 아이 아버지 가시기 전에 어서 어머니한테 알려드려야죠.

**아이 뛰어가 반대쪽 무대로 퇴장한다.**

설매랑 (일어나 손을 휘저으며 아이를 찾지만 보이지 않는다) 아가, 아가 어  
 디에 있느냐. 가면 안된다. 아가야. 돌아오렴...  
 구진 (급히 등장한다) 설매랑님, 이제 가야 합니다. 아이 엄마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설매랑 들어오다 혹시 우리 아이를 못보셨습니까.  
 구진 어디 갔습니까 아이?  
 설매랑 아이가 지 엄마를 찾는다고 나갔는데...

**바구니에 채소를 든 연화 등장한다.**

연화 스님, 많이 기다리셨지요? (하다 설매랑을 발견한다) 설매랑님?  
 설매랑 연화!

**연화, 바구니 떨어트리고 달려가 설매랑의 품에 안긴다.**

연화 살아계셨군요. 살아계셨군요 설매랑님.  
 설매랑 얼마나 고생이 많았소. 미안하오 이제야 나타나서.  
 연화 아닙니다 아닙니다. 살아계셨으면 됐습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전  
 믿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설매랑님이 죽었다고 해도 전 믿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돌아오시리라 믿고 있었습니다.  
 설매랑 (연화의 손을 잡으며)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곱던 손이 이렇게도 거칠  
 어졌구로. 고생 많았소. 혼자 몸으로 아이를 키우느라... 내가 죄가 크  
 오.  
 연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런 말씀 마십시오. (설매랑의 얼굴을 보다가)  
 그런데 눈은...  
 설매랑 그때 연화와 헤어지고 서라벌로 돌아가던중에 신공이 반란을 꾀했소.  
 그들과 전투를 벌이던중에 눈을 다쳤고 다 죽어가는 나를 일룬스님께  
 서 구하셨소.  
 연화 그랬군요. 다행입니다 이렇게 살아와주신 것만으로도 다행입니다.

**연화, 갑자기 무슨 생각을 한 듯 동작을 멈추고  
설매랑과 구진을 본다.**

일룬 E 사내지만 사내가 아닌자 눈은 있지만 볼수가 없는자 절대로 집안에  
 들이지 말거라.

**연화, 놀란 얼굴로 텅 빈 평상을 본다.**

연화 (급히) 아기는, 아기는 어디 있습니까.  
 설매랑 당신을 데려온다고 나갔소.  
 연화 (사색이 되어) 아가야... 아가야.. 우리 아기..  
 설매랑 왜 그러시오?

**연화, 미친 듯이 무대를 돌아다니며 아이를 찾는다. “아가야 아가야!”**

설매랑 “연화, 연화 무슨 일이오”

구진 역시 불길한 예감에 연화와 함께 무대를 돌며 아이를 찾는다. “애야, 아가야”  
 그렇게 찾는데 순간 “침병” 하며 누군가 물에 빠지는 소리.

연화, 동작 멈추고 멍하니 서있다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목놓아 아이를 부른다.  
 “아가야! 아가!”

5장

무대 가운데에 다리의 뼈대 세워져 있다.  
가사 장삼을 두른 스님들, 저마다 옆구리에는 석판을 하나씩 들고 무대로 나온다.  
자책의 표정으로 눈물을 흘리며 스님들 틈에 끼어있는 구진.  
스님들, 천수경을 외우며 다리의 뼈대에 석판을 하나씩 맞추어 석교를 만들기 시작한  
다.  
연화 무대 가운데에 낮빠진 얼굴로 앉아있다.

\*석판- 목판을 색을 입혀 돌 느낌이 나도록, 그리고 다리가 완성된 다음에 연화와  
일륜이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충분히 무게를 견딜수 있는 나무로 준비한다.

\*천수경- 스님들이 작업을 하며 천수경을 부르고 중간중간 연화의 노래(노래 또는  
대사로 낭독)가 들어간다.

만약 공연시에는 연출자와 음악 감독의 조율하에 결정한다.

정구업진언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

오방내외안위체신진언

나무 사만다 못다남 음 도로도로 지미 사바하  
나무 사만다 못다남 음 도로도로 지미 사바하  
나무 사만다 못다남 음 도로도로 지미 사바하

연화 가장 높고 미묘하고 깊고 깊은 부처님법의 뜻을  
백천만겁 지나도록 만나뵈기 어려워라  
이제 다행이도 듣고 보고 깨달았으니  
부처님께 진실한 뜻 알아지이다.

음 아라남 아라다  
음 아라남 아라다  
음 아라남 아라다

연화 관음보살 신주 앞에 머리 숙여 절합니다  
그 원력이 위대하사 상호 또한 거룩하고  
고액 속에 모든 중생 일천팔로 거두시며  
일천 눈의 광명으로 온 세상을 살피시네  
참된 말씀 그 가운데 비밀한 뜻 보이시고

하염없이 그 맘속에 자비심이 넘칩니다  
저희들의 온갖 소원 빨리빨리 이루어고  
모든 죄업 남김없이 깨끗하게 씻어이다.

나모리 다니다라 야야 나막알야 바로기제 새바라야 사바하  
나모리 다니다라 야야 나막알야 바로기제 새바라야 사바하  
나모리 다니다라 야야 나막알야 바로기제 새바라야 사바하

연화 아득히 먼 옛날부터 내가 지은 모든 악업  
크고 작은 그것 모두 탐진치로 생기었고  
몸과 입과 뜻을 따라 무명으로 지었기에  
나는 지금 진심으로 참회하고 비나이다.

음 살바못자 모지 사다야 사바하  
음 살바못자 모지 사다야 사바하  
음 살바못자 모지 사다야 사바하

스님들 다리를 완성하고 퇴장한다.  
일륜, 무대로 등장해 혼자 망연한 얼굴로 남아있는 연화를 부른다.

일륜 올라 오거라.

완성된 다리 위에 오르는 일륜을 따라 천천히 다리 위에 오르는 연화.  
중간중간에 멈춰서는 두 사람.

일륜 오늘이 사십구제가 끝나는 날이다.  
연화 .....  
일륜 너의 그 불쌍한 아들을 위해 서원경의 스님들이 모여 지난 49일 동안  
나서서 비로소 다리를 완성 했구나.  
연화 (힘없이 털썩 주저앉는다)  
일륜 모든게 부처님의 뜻이다. 그 아이를 너에게 보낸것도, 그리고 다시 그  
아이를 데려가 이 석교를 만들어 앞으로 많은 이들의 희생을 막은 것  
도 모두 부처님의 뜻이다.  
연화 (눈물 흘리며) 스님. 살아있다는 것이 큰 업보이며 이런 삶을 되풀이  
하도록 인간으로 윤회된다는 것이 크나큰 죄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륜 삶이란 것은 본래부터 진행되지 않고 맴돌뿐이다. 시간 역시 흘러가  
지 않고 고일뿐이며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그저 잊혀질 뿐이나라. 삶

연화      과 죽음, 있음과 없어짐이 하나임을 알아야 되느니라.  
 세월은 살았으나 덧없는 시름일 뿐, 인생은 끊어지고 이제 축생같은  
 목숨만 남았습니다.  
 일륜      모든 것이 소멸된거 같지만 무엇인가 남아있는 것 그것이 삶이다. 니  
 가 어미로써 할 일은 니 지아비였던 설매랑을 따라 불가에 귀의해 죽  
 은 니 아이의 극락왕생을 빌어주는 것이다.

**연화, 다리 아래를 보며 하염없이 울기만.**

일륜      오랜세월 쌓인 죄를 한생각에 쓰러져  
 마른풀을 불태우듯 흔적조차 없어지네  
 죄의 본성 없는데 마음따라 일어난 것  
 마음한번 쉬려는 죄업 역시 사라진다  
 죄와 업이 없어지고 마음 함께 공하면  
 이것을 이름붙여 참된 참회라 하네.

**구슬피 우는 연화를 잠시 바라보다가 일륜 무겁게 입을 연다**

일륜      이제 아이를 보내 주거라.

**연화, 눈물을 닦으며 처연한 얼굴로 다리 아래를 내려본다**

연화      ...세상에 헤어지지 않는 인연은 없지. 잘 가라 우리 아기... 너와 나  
 의 인연이 삼줄로 엮어놓은 것이 아닐진대 천겁 역겁의 윤회로도 어  
 찌 하나가 될수 있겠니. 헤어지기 전에 애를 써야만 하는건데... 그런  
 데 이 어미는 애를 쓰지도 못하고 오직 이 추악한 어미의 욕심으로  
 널 떠나보냈구나. 이 세상 윤회를 돌아 다시 만나자 아가야... 채 피  
 지도 못하고 짧은 생을 마감하고 떠나는 우리 아가... 부디 안녕하거  
 라. 이 무심한 물결에 널 띄워 보내고 이 에미는 다신 돌아보지 않으  
 마. 멀리 돌아가도 이 무심천은 눈에 보이겠지만 아가야... 이제 널  
 궁구하는 일은 그만두고 오직 너의 극락왕생만 빌으마. 우리 아기...

**흐느끼며 일어나는 연화.**

일륜 천천히 걸음 옮긴다.

그때 장삼에 붉은 가사를 두른 스님들 등장한다.

대오를 맞춰 장엄한 분위기로 바라춤을 추기 시작하는 스님들.

구슬피 울며 일륜을 따라 천천히 다리를 내려가는 연화.

스님들의 바라춤이 계속 이어진다.

마치 죽은 아이의 혼을 달래는 것처럼.....